

음악대학소식

Spring, 2016. Vol.17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Contents

04

음악대학 주요행사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년만에 찾아온 축제_ 서울대학교 정기오페라 <마술피리>
 압도적인 무대_ 임현정과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테마로 만나는 현대음악_STUDIO 2021
 따스한 현악 선율의 향연_ SNU 스트링 앙상블 연주회
 도약을 향한 힘찬 울림_ SNU 윈드 앙상블 연주회
 전통의 멋이 흐드러지구나_ 국악과 가을 정기연주회
 자연의 정취를 담은 소리의 향연_ 국악과 협연의 밤

16

리뷰 & 리포트

새롭게 단장한 지식의 공간_ 도서관 탐방
 서울대 가족과 관객주인을 위한_ 화요음악회

19

사회와 함께하는 음악대학

사회공헌의 밤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사회공헌의 밤을 더 밝게 비추다

20

인터뷰

정년퇴임교수 인터뷰
 새롭게 시작되는 예술예의 여정_ 국악과 정대석 교수
 호주로부터 찾아온 특별한 만남_ 지휘자 데이비드 로버트슨
 품격, 소통, 차별화_ 국악과 임재원 교수
 전통을 안고 현재를 나아가는 "예인(藝人)"_ 국악과 이지영 교수
 설레는 시작을 연주하다_ 학생연주팀 <Karis Quartet>

26

강의실을 찾아서

'음악'의 기술, '음악'을 위한 인성을 익히다
 _ 타악레슨 / 최경환 교수

28

연구프로젝트 탐방

서양음악연구소 학술포럼

30

학생회 소개

소통을 위한 심 없는 노력
 _ 음악대학 학생회 <심포>

31

졸업생을 찾아서

26회 클라리 하스킬 국제콩쿨 파이널리스트
 - 피아니스트 지유경

32

감사합니다

악기기증_ 이주호 교수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34

축하합니다

콩쿠르 입상자

36

학과 및 연구소 소식

교수 동정
 학과 및 연구소 소식





04

SNU Main Event

The Regular Concert of SNU Symphony Orchestra

Festival, returned in two years_ SNU Opera "Magic Flute"

Maestro Hun-Joung Lim and SNU Symphony Orchestra

SNU New Music Series__ STUDIO2021

The Invitation to the feast of Strings_The SNU String Ensemble Concert

The Vigorous Sound of a Leap Forward_The SNU Wind Ensemble Concert

Tradition, fully bloomed

_ The Regular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Feast of sound including mood of nature

_ The Collaboration Concert by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16

Review & Report

Library Relocation

SNU Tuesday Concert for SNU families and Local Residents

19

The College of Music with Society

SNU the College of Music,

brightened the Night of the Social Contribution

20

Interview

Interview with retiring Professor

Beginning New Journey of the Art _ Professor Dae-seok Jeong

Maestro David Robertson

Dignity, Communication, Differentiation

_ Professor Jae-won Lim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Embracing Tradition, and moving forward

_ Professor Ji-young Li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Performing Joyful Start_Karis Quartet

26

Visiting Classroom

Learning techniques of Music, Learning Personality for Music

_ Percussion Lesson/Professor Kyung-hwan Choi

28

Research Project

Academic Forum by SNU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30

The Student Council of the SNU College of Music

Nonstop Effort to communicate

_the College of Music Student Union "Syum-pyo"

31

Alumni News

A Finalist, the 26th Clara Haskel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_ Pianist Yu-hyeong Ji

32

Appreciation

The list of Donators for Development Fund

_ Professor Tschu-Ho Lee, Donates a Violin

Appreciation

_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34

Bravo! Prize Winn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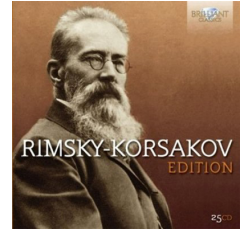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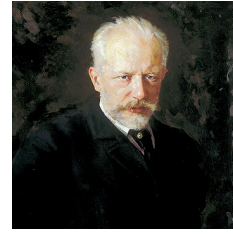
36

Activities News

Faculty Activities

SNU Symphony Orchestra

정기연주회



I . 러시아의 화려한 가을

지난 9월 23일,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로 2015년 2학기의 첫 활동을 시작하였다. 서울대학교 문화관에서 열린 이번 정기연주회는 러시아를 대표하는 두 작곡가, 차이코프스키와 림스키코르사코프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첫 순서로 구모영의 지휘와 이은새(기악과, 13)의 협연으로 연주되는 차이코프스키의 「바이올린 협주곡 D장조, op.35」가 연주되었다. 1878년 작곡된 이 곡은 차이코프스키가 말로의 바이올린 음악에 매료되어 창작한 작품으로, 오늘날 바이올린을 위한 대표적인 레퍼토리 중 하나로 손꼽힌다.

오케스트라와 독주가 끊임없이 맞물리고 대비되면서 화려한 음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독주자의 기량이 돋보이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협연자인 이은새는 섬세하고 날렵한 기교를 통해 작품 안에서 변화하는 다양한 색채를 표현해내었다.

이어서 임헌정의 지휘로 림스키 코르사코프의 「셰헤라자데」가 연주되었다. 민화집 <아라비안나이트>에서 영감을 받아 창작된 이 작품은 4개의 악장 전체에 이국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긴다. 오케스트라 전체의 조합 뿐 아니라 각 악기군 특유의 색채를 심분 활용한 작품이기 때문에, 단원들의 역량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바이올린으로 연주되는 셰헤라자데의 테마가 등장할 때마다 관객들은 숨을 죽였다.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SNU 심포니는 관객들로 하여금 이국의 정취를 듬뿍 느끼게 하였다. 더불어 SNU 심포니가 보여줄 2학기 동안의 남은 연주 여정을 기대하게 하였다.



The Regular Concert of SNU Symphony Orchestra I

On September 23rd, SNU Symphony Orchestra made their first step into the fall semester, 2015. This regular concert was held at University Cultural Center, SNU, where two pieces by two renowned Russian composers, Tchaikovsky and Rimsky-Korsakov, were performed. During the performance Eunsae Lee performed Violin and Muyoung Gu conducted 'Violin Concerto Op.35', in addition Maestro Hun-Joung Lim conducted 'Scheherazade'.



Ⅱ. 서울대학교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끝없는 비상

지난 10월 28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정기연주회를 열었다.

그 첫번째 무대는 스트라빈스키의 발레음악 「불새 모음곡」(The Firebird Suite)의 서주로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전설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이 곡은 러시아 민요선율을 풍부하게 만들어 격정적인 감정 분출, 현란한 색채와 약동하는 리듬이 가득하다.

정한결(지휘.10)의 섬세한 지휘로 청중들은 신비로운 불새의 전설에 빠져들었고 불새의 화려한 비상과 함께 1부는 마무리되었다.

2부의 무대는 멘델스존의 「교향곡 5번 op.107」 “종교개혁”의 엄숙하고 종교적인 오케스트라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 300주년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작곡된 이 곡은 멘델스존의 특유의 낭만성보다는 신앙적인 엄숙함과 경건미가 장엄하게 드러나는 곡이다. 백승현(지휘.10)은 힘차고 당당한 기세로 종교개혁의 위엄을 표현하며 청중들의 뜨거운 박수갈채를 받았다.

이번 공연은 공연장을 찾은 사람들에게 조용한 기도와 같은 선율을 가슴에 남기며 평온한 밤을 선물하였다.



The Regular Concert of SNU Symphony Orchestra II

A concert of the SNU Symphony Orchestra was held at the University Cultural Center, SNU on October 28th. Two pieces were performed; Hankyul Jung conducted Igor Stravinsky's Introduction from the Firebird Suite, and Seunghyun Baek conducted Felix Mendelssohn's Symphony No.5 [Reformation] In D Major, Op.107.

2년만에 찾아온 축제 서울대학교 정기오페라 마술피리

2015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제 29회 정기오페라로 모차르트의 '마술피리'가
10월 22일~24일까지 문화관 대강당에서 무대에 올랐다.

SNU Opera "Magic Flute"

On October 22nd to 24th 2015, there was the 29th regular opera concert, where Mozart's opera 'Magic Flute' was performed at University Cultural Center. This concert was the first such concert held since Donizetti's "Don pasquale" was showcased in 2013.

This concert contained abundant attractions such as a glamorous aria by the Queen of the Night, sincere and thoughtful acting by Tamino and Pamina, along with the conviviality of Papageno and Papagena.





2013년 도니제티의 '돈 파스칼레' 공연 이후로 2년만에 열린 정기 오페라 연주에 많은 서울대학교 음악애호가들이 모여들었다. 예술총감독으로 서울대학교 성악과 교수 박미혜, 국립오페라단의 '돈 조반니', 대구오페라 축제의 '투란도트' 등으로 연출력을 인정받은 연출가 정선영, 지휘에는 김덕기 교수와 정한걸, 음악감독에 정호정, 그리고 SNU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성악과 합창단이 모두 합심하여 훌륭한 공연을 이끌어냈다.

'마술피리'는 모차르트가 남긴 최고의 걸작으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민요, 오페라 부파적 요소, 기교적인 콜로라투라까지 다양한 음악적 양식을 맛볼 수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심오한 도덕, 윤리적 철학을 기반으로 한 동화적인 스토리에 정선영 연출가의 아름다운 영상미로 공연을 찾은 모든 이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켰다.

타미노 역에 전하라, 김윤권, 고태영, 파미나 역에 김지유, 김정민, 김우린, 밤의여왕 역에 박주현, 장연주, 이혜진이 연기하였다. 주연들의 훌륭한 연기와 기량에 서울대학교 성악과 학생들의 출중한 실력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파파게노를 연기한 임훈택, 박종현, 파파게나를 연기한 박수진과 박선우는 극 중간 중간 시원한 웃음을 선사하며 마술피리의 신스틸러적인 면모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번 서울대학교 정기 오페라 연주는 밤의 여왕의 화려한 아리아부터 타미노와 파미나의 깊은 내면 연기, 파파게노와 파파게나의 유쾌한 모습 등 풍부한 볼거리로 가득 찬 공연이었다. 커튼콜 무대에서 수고한 모든 출연진들, 공연을 흔들림 없이 받쳐준 오케스트라 등 모두가 서로에게 박수를 보내는 모습은 관객에게 또 한번 감동을 안겨주었다. 2년 만에 찾아와 더욱 감동적이었던 서울대학교 정기 오페라 공연의 다음 작품을 기대한다.



압도적인 무대

임헌정과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



크리스마스를 3일 남겨두고 성탄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던 지난 12월 22일, 서울대학교 문화관 대강당에서 임헌정과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서울대학교 학생들과 관악주민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선물이 같은 '브루크너 교향곡 제9번' 연주를 선사했다.

트럼펫의 장엄한 신호로 막을 연 첫번째 무대는 바그너의 「리엔치 서곡」으로 작곡 당시 빛에 시달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던 바그너가 재기를 노리며 전념한 곡이다. 오페라 리엔치는 브로바의 소설 〈최후의 로마 호민관 리엔치〉에 의한 것으로 14세기 로마에서 몹시 횡포를 부린 귀족에게 반항하여 공화정치를 건설한 리엔치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서곡은 민중들이 리엔치를 환호하는 합창, 혁명의 승리가 찬연하고 힘차게 빛나는 '우리의 마음 타오르네'의 가락이 울려 퍼지며 마무리되었다.

인터미션 없이 계속된 이번 공연의 주요 무대인 '브루크너 교향곡 제9

번'은 현의 트레몰로로 신비롭게 시작되며 관객들의 귀를 사로잡았다. 가히 압도적이라 할 만큼 숭고함을 발산하는 1악장은 전능하신 신이 지배하는 듯한 리듬이 장대하게 나타나며 크게 출렁인다. 1악장과는 완전히 새로운 음악인 2악장은 냉소적이고 신랄한 화성이 끝없이 나타나고 불협화음으로 변모해 폭력적이고 자극적인 톤의 연속을 보여준다.

브루크너의 다른 음악에서 들을 수 없는 이러한 특별한 스케르초의 2악장을 지나 느리고 장중한 3악장이 시작된다. 바그너의 음악극 〈파르지팔〉의 '성배'모티프를 연상시키는 현과 목관의 장대한 상승의 제스처, 화성을 해결하지 않은 채 끊임없이 표류하는 진행과 같은 점에서 바로 전 무대의 바그너와 유사한 점을 많이 보여주었다.

음악은 으름 조가 광대하게 펼쳐지고 확산되며 끝을 맺었다. 지휘자 임헌정과 SNU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단원들의 그동안의 노력과 아름다운 결실에 관객들은 긴 시간의 연주시간에도 불구하고 다같이 뜨거운 박수로 화답하였다.

Maestro Hun-Joung Lim and SNU Symphony Orchestra

On December 22nd, at University Cultural Center, Maestro Hun-Joung Lim and SNU Symphony Orchestra performed Bruckner's Symphony No.9. It was three days before Christmas, and it seemed like a great Christmas gift to the SNU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Audiences heartily applauded the great performance even considering long running time.

테마로 만나는 STUDIO2021

현대음악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의 현대음악시리즈 'STUDIO2021'이 2015년 가을시즌을 맞이했다. 각각의 테마를 지닌 세 개의 특색있는 콘서트와 하나의 렉처로 구성된 이번 시즌에서도 작곡가와 연주자, 그리고 청중들이 현대음악이라는 장에서 만나 어떤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지 들여다보자.

MASTERS SERIES : BYUNG-DONG PAIK

10월 7일에 열린 첫 번째 콘서트는 청중들에게 한국 현대 음악사에 족적을 남긴 작곡가 백병동(1936-)의 팔십세를 기념하여 그의 작품 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대학시절 작곡된 피아노 모음곡 '어린이를 위한 조곡'(1957)을 시작으로, 피아노와 바이올린 그리고 첼로를 위한 '에피그람'(1978),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5개의소품'(1990), '피아노와 타악기를 위한 2중주'(1990), 해금과 기타를 위한 '뒤틀림에서 초연의 피안으로'(2010), 가야금과 25현금을 위한 '농·학'(2012), 마지막으로는 세명의 소프라노와 네 대의 호른을 위한 '물수계비'(2011)까지 총 여덟 작품이 연주되었다.

작곡시기와 편성, 어법 등 모든 측면에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구성된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청중들은 초기 작품에서 시작하여, 서양음악을 하는 한국인으로서 그가 어떻게 자신만의 음악적 사고와 어법을 구축하게 되었는지 경험할 수 있었다. 연주는 작곡과 최우정 교수가 예술감독을 맡고 있는 'TIMF앙상블'이 맡았다.



GUEST COMPOSER'S LECTURE : SVEN-DAVIDSANDSTRÖM

10월 12일에는 두 가지 프로그램이 있었다. 오후에 먼저 열린 프로그램은 이번 시즌의 초청 작곡가인 스벤 - 다비드샌드스트롬(1942-)의 특강이었다.

샌드스트롬은 스웨덴 출신의 작곡가로 오페라나 오라토리오같은 대편성 작품에서부터 작은 규모의 실내악과 합창곡까지 다양한 편성의 작품을 만들어왔다. 그의 음악에 흔히 붙는 수식어인 '표현성', '대중성', 양식적 다원주의', '신낭만주의'를 통해 짐작할 수 있듯이, 그의 음악은 표현의 다양성과 감정적 강렬함을 겸비하고 있어서 대중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넓은 표현력을 가지고 있다. 청중들은 눈앞에서 육성으로 전해지는 그의 예술 세계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었으며 작곡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대가의 강의를 듣고 예술가로서의 삶에 대해 생각해보는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PERFORMERS STUDIO : ENSEMBLE2021

10월 12일 저녁에 열린 프로그램은 박영희(1945-), 갈리나우스트 볼스카야(1919-2006), 샌드스트롬, 백병동, 아놀드 쇤베르크(1874-1951)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박영희의 플루트 독주를 위한 「Dreisam-Nore」(1975)는 그녀의 프라이부르크 유학시절 그 곳에 흐르던 강이었던 '드라이잡'을 떠올리며 작곡된 곡이다. 볼스카야의 첼로와 피아노를 위한 「GrandDuet」(1959)는 로스트로포비치에게 헌정된 작품으로, 음악에 대한 고정관념과 20세기 현대음악을 휩쓴 아방가르드적 흐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가 구축한 세계가 무엇이었는지 일별할 수 있는 작품이다. 샌드스트롬의 「PianoTrio」(2012)는 익숙한 음형과 화음, 전통적인 리듬 등을 통해 '신낭만주의'라는 그의 경향이 드러나는 곡이었다. 백병동의 바이올린 독주를 위한 「Passacaglia」(1997)는 바로크시대의 변주곡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훌륭한 예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연주된 곡은 대중적으로도 잘 알려진 쇤베르크의 「달에 홀린 빼에로」(1912) 중 제 2부 였다. 청중들은 새로운 음악 어법을 향한 실험, 장르의 경계를 넘나들며 전통을 재해석하는 것, 즉 음악의 '현대성'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모범적인 예를 만날 수 있었다.

이번 시즌에서 가장 주목할 점 중의 하나는 'STUDIO2021'의 상주 연주단체인 'ENSEMBLE2021'의 창단이였다. 'ENSEMBLE2021'는 공동 음악감독인 기악과 최희연 · 윤혜리 교수를 중심으로,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실력을 검증받은 7명의 상임연주자들로 구성되었다. 10월 12일 저녁콘서트에서 'ENSEMBLE2021'는 다양한 어법과 표현이 공존하는 현대음악을 탐구하고 청중들에게 소개한다는 'STUDIO2021'의 모토를 품은 성공적인 창단 연주를 들려주었다.



PERFORMERS STUDIO : SNU WIND

이번 시즌의 마지막 프로그램은 만토바니(1974-), 줄리베(1905-1974), 김새암(1987-), 샌드스트롬 그리고 고스트라빈스키(1882-1971)의 작품으로 구성되었다.

만토바니의 '버그'(1998)는 클라리넷 연주자의 고난도 기교 가요구되는 곡으로, 상이한 리듬패턴들이 극단적인 악상 변화와 주법을 통해 제시되었다. 'L'Ère de Rien(無의 시대)'는 작곡가가 이질적인 비서구 음악 양식들에서 받은 영감을 서양 악기를 통해 표현해 낸 곡이다. 줄리베의 플룻과 타악기를 위한 'Suite'(1955/56)은 인류의 가장 원초적인 음악 형태에 대한 작곡가의 관심을 드러낸 곡이었다. 김새암의 목관오중주곡 'La Danse du roiDavid'(2015)는 인간의 역동적 생명력이 가장 순수한 형태로 드러나는 수단인 춤의 본질을 탐구한 곡이었다.

마지막 작품은 스트라빈스키의 'Symphonies of Wind Instruments'(1920)였다. 제목과는 다르게 전통적인 교향곡 형식을 따르지 않고 악기들의 다양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짧은 이야기들로 구성되었다. 마지막 콘서트를 꿰뚫는 키워드는 '음악이 가진 제의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상이한 배경을 가진 작곡가들이 공통적으로 추구한 것은 음악의 원초적 형태였다.

이번 콘서트를 통해 청중들은 '예술이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품고 돌아 갈 수 있었다.

김용재(작곡과 작곡전공)

SNU New Music Series_STUDIO2021

The SNU New Music Series 'STUDIO2021' began its 2015 fall season. This season consisted of three distinctive concerts and a lecture by guest composer, Sven-David Sandstrom.

Also, the event held significance as Ensemble-in-residence, Ensemble2021 held and performed their first concert.

따스한 현악 선율의 향연 SNU 스트링 앙상블 연주회



쌀쌀해진 초겨울 저녁, 11월 23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SNU 스트링 앙상블의 연주가 열렸다. 이번 공연에서는 강창우 교수의 지휘로 비발디, 모차르트, 차이코프스키의 작품이 연주되었다.

첫 번째로 연주된 작품은 비발디의 2개의 바이올린과 첼로를 위한 「L'ESTRO ARMONICO Concerto in d minor」 Op. 3, No. 11이었다. 솔로 연주는 제 1 바이올린 진요셉, 제 2 바이올린 김영지, 첼로 박주호가 맡았다. 바로크 음악의 화려함과 현악 앙상블의 부드러운 소리가 매우 잘 어우러졌다. 두 번째로는 모차르트의 피아노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Concerto in C Major」 K. 467이 연주되었다. 피아노 협연은 최형록이 맡았다. 피아노 협연자의 기량과 안정감 있는 현악 앙상블의 조화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는 차이코프스키의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SERENADE」가 연주되었다. 현악기만의 풍부한 음향이 매우 잘 드러난 무대였다. 늦가을, 초겨울의 쌀쌀한 날씨도 잊게하는 부드러운 현악 선율이 매우 따스했던 SNU 스트링 앙상블의 다음 공연이 기다려진다.



The Invitation to the feast of Strings_The SNU String Ensemble Concert

During the SNU String Ensemble's concert hall performance on November 23rd, professor Chang-woo Kang conducted Vivaldi's L'ESTRO ARMONICO Concerto Op. 3 and Mo art's Piano Concerto in C Major K. 467.

It was such a warm gift from the SNU String Ensemble they made us forget about the chilly autumn weather.

도약을 향한 힘찬 울림 SNU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

지난 9월 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SNU 윈드앙상블의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윈드앙상블은 전상직 교수의 위촉초연작 「Veni Creator...」 for wind orchestra를 비롯하여 슈만의 「네 대의 호른과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op.86,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을 연주하였다.



앙상블을 지휘한 김영률 교수는 “룩셈부르크의 유명한 호른 연주자들과 기회가 닿아서 같이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슈만의 곡은 호른 레퍼토리 중 제일 어려운 곡 중 하나예요. 슈만이 이 곡을 썼을 당시 악기의 기능이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았음에도 현재의 발전된 악기로도 연주가 힘들 정도로 호른의 잠재력을 예견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죠. 전람회의 그림은 원래 피아노를 위해 작곡된 곡이지만 라벨의 오케스트라 편곡이 많이 연주되는데, 이번 연주에서는 요시오 나카하시의 관악기를 위한 편곡 버전을 연주했어요. 그 전의 편곡들과는 다른 색채로 관악 앙상블에 맞춘 재미있는 편곡이었습니다” 라고 말하였다. 관악 앙상블의 특성상 편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김영률 교수는 레퍼토리 선정에 많은 공을 들인다고 하였다.

윈드앙상블의 성공적인 연주에는 항상 김영률 교수가 있었다. 94년부터 서울대의 윈드앙상블을 맡아서 지휘하고 있는 그는 알반 베르크의 「피아노, 바이올린과 13개의 관악기를 위한 실내협주곡」을 비롯하여 많은 곡을 한국초연하였으며, 국내 및 세계 굴지의 솔리스트들이 윈드앙상블과 협연을 하였다.

김영률 교수는 매년 수업 및 연주를 통해 성장하는 학생들과 SNU 윈드 앙상블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내었다.

“관악 합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이스트만음악학교에서 공부했는데, 당시 보고 배운 것들을 모교의 후배들에게 알려주고 싶어 노력하였고 이제는 틀이 많이 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관악 연주의 큰 향상으로 국내 오케스트라에서 말러 등 대규모의 관악기가 등장하는 곡들을 쉽게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는데 그 중심에 서울대학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돌아오는 2016년은 SNU 윈드 앙상블에게 특별한 해가 될 것이다. 5월 초 예술의 전당에서 열리는 정기연주회 뿐 아니라 서울대학교의 개교 70주년을 맞아 관악 버들골 및 연건캠퍼스, 분당 서울대병원, 평창 등 서울대학교 유관기관 순회공연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으로 SNU 윈드앙상블이 해외의 큰 페스티벌에도 참가하여 국제적인 수준의 기량을 발휘하기 바란다는 김영률 교수. 그의 바람대로 SNU 윈드앙상블이 국내 뿐 아니라 세계로 뻗어나가는 관악 앙상블의 가능성을 열어가기를 기대한다.

The Vigorous Sound of a Leap Forward - SNU Wind Ensemble Concert

On September 6th, a concert of the SNU Wind Ensemble was held at Seoul Arts Center. The program included the premier of Professor Sang-jik Chun's "Veni Creator", Schumann's concerto for 4 Horns, and Mussorgsky's "Pictures at an Exhibition". Professor Young-Yul Kim, who has conducted and developed the SNU Wind Ensemble to this day, revealed his desire for the SNU Wind Ensemble to grow globally.

전통의 멋이 흐드러지구나

국악과 정기연주회



Tradition, fully bloomed_ The Regular Concert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n October 30th, at Yeak-dang, National Gugak Center,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s Regular Concert was held for the 57th time. This concert consisted of various traditional ensemble pieces, Gayageum Sanjo, and new music.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students proudly showed their sophisticated music through a modern and traditional music program.

가을학기가 절반을 넘어서 지난 10월 30일, 국립국악원 예악당에서 제 57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정기연주회가 열렸다. 이번 정기연주회의 1부는 전통적인 작품 위주로, 2부는 모두 창작곡들로 구성되어 국악의 다채로운 색을 보여주었다.

첫 곡으로 연주된 「관악보허자(步虛子)」(집박 : 김경아)는 고려시대에 들어온 송나라 사악 계통 음악으로, 본 공연에서는 수악절 가사를 얹어 노래와 함께 연주되었다. 다음으로 연주된 정대석 작곡의 거문고합주곡 「미리내」는 '은하수'라는 뜻의 제목에 걸맞게 거문고의 다양한 기법을 통해 별에 대한 신비를 나타내었다. 바로 이어서 대표적인 판소리 더늠의 가야금산조인 「김병호류 가야금산조」가 연주되었다.

임도경 학생은 김병호류 산조 특유의 독특하면서도 깊이 있는 농현과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김새를 훌륭하게 표현하며 인상적인 연주를 선보였다. 기품있는 산조의 연주가 끝난 뒤 기악합주 편성의 「뱃노래」가 연주되며 힘차게 1부가 마무리되었다.

2부의 첫 순서는 양승환의 위촉초연작인 「강원도의 꿈」이 연주되었다. 4악장으로 구성된 이 작품은 메나리 토리로 이루어진 강원도의 토속 민요들을 모티브로 삼아 민속적 요소들이 조화를 이룬다. 이어서 여창과 거문고 협주가 남녀의 사랑을 상징하며 어우러지는 김대성 작곡의 「궁남지(宮南池)」가 개작초연되었다. 애절한 가사를 노래하는 여창의 목소리가 관객들의 마음을 울리기에 충분하였다.

마지막으로 하와이대학 교수 토마스 오스본이 작곡한 해금협주곡 VERSES가 연주되며 정기연주회가 막을 내렸다. 전통과 현대가 절묘하게 어우러진 이번 정기연주회에서 학생들의 연주는 세련된 흥취를 자아내어 관객들의 박수를 이끌어냈다.



11월 30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협연 연주회가 열렸다. 이번 연주회의 주목할 점은 국악과 내에서 6월에 진행한 협연 오디션에서 당당하게 합격을 한 학생들이 진행을 하게 되는 것으로 본래 일 년에 한두 명에게만 주어지던 협연의 기회를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제공하게 되면서 많은 연주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연주회는 채길룡이 지휘하는 1부와 이승환이 지휘하는 2부로 나뉘었다. 한 공연장에서 두 명의 지휘자가 준비한 연주를 볼 수 있는 기회가 흔치 않다는 점에서 본 공연은 두 지휘자의 다른 감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재미를 주었다. 1부와 2부 모두 세 곡씩 연주가 진행이 되고 각 지휘자마다 협연곡 2곡과 관현악곡 1곡을 연주했다.

가장 먼저 1부의 시작을 알리는 음악으로 「5월에 내린 눈」이 연주가 되었다. 연주자 전원이 참여하는 관현악곡인 이 곡은 싱그럽고 찬란한 봄의 느낌에 더불어 따뜻한 여운을 남기게 해주었다. 두 번째 순서로는 주정현 연주의 해금 협주곡 「혼불」이었다. 가야금 곡으로도 전해지는 이 곡은 해금만의 특색을 보여주는 다양한 연주 기법이 등장하게 되는데 협연자가 이를 능숙하게 연주를 함으로써 공연장 속 관객들은 해금의 매력에 매료되었다. 1부의 마지막으로 박수빈 연주의 대금 협주곡 「꽃꽃」이 연주되었다. 연주자는 청아하고 맑은 대금의 청소리와 함께 대금의 기량을 마음껏 펼쳤고 복잡한 다성음악과 리듬을 깔끔하게 풀어냈다.

이승환이 지휘하는 2부 공연 시작으로 연주된 관현악곡 「상상상」은 복잡하고 미묘한 화성과 선율 진행을 흐트러짐 없이 연주함으로써 지휘자와 연주자의 섬세함이 돋보였다. 두 번째로 연주된 곡은 이다영의 가야금 협주곡 「대화」로 가야금의 다양한 연주기법을 통하여 청명하고 고운 가야금의 소리를 표현하였고 변박되는 엇모리 장단을 신명나게 풀어냈다. 마지막으로 이예나 연주의 태평소 협주곡 「연가」가 연주되었다. 공연의 마지막을 태평소의 큰 소리로 관객들을 집중시켰고 다양한 조를 넘나드는 곡을 자연스럽고 시원하게 연주함으로써 마지막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였다.

성황리에 막을 내린 제 2회 서울대학교 국악과 협연의 밤은 학생들과 지휘자들이 자체적으로 공연 연습을 진행하여 본인 스스로 음악적 기량을 넓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학생 본인이 스스로 음악적인 기량을 넓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큰 호평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보아 협연의 밤 공연은 앞으로 서울대학교 내에서 협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미래 프로연주자들을 크게 발굴해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음 차기 연주자들에 대한 기대가 된다. 성공적으로 연주한 그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자연의 정취를 담은 소리의 향연

국악과 협연의 밤

Feast of sound including mood of nature_ The Collaboration Concert by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n November 30th at the Concert Hall, there was a Collaboration Concert by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To select performers,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opened an audition in June. Gil-young Chae conducted the first part, and Seunghwan Lee conducted the second part. Each conductor performed two pieces of Concerto and one orchestral work.

서울대 가족과 관악주민을 위한 화요음악회

화요음악회는 서울대학교 교직원 및 학생, 관할 구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무료 예술 공연 행사로서, 1994년 '수요음악회'로 시작되었다. 1996년에 '화요음악회'로 명칭을 바꾼 뒤 현재까지 다양한 동·서양의 음악을 선보이며 계속되고 있는 본 연주회는 관객들이 음악을 보다 친숙하

고 가까이 받을 수 있도록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015년 2학기 화요음악회는 10월 20일 공연을 시작으로 12월 15일까지 총 6번의 무대로 이루어졌으며 화요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문화관 중강당(73동)에서 열렸다.



10.20 에스윗(S. with)

색소폰 앙상블 에스윗(S. with)이 드뷔시의 꿈결 같은 하모니로 2016년 가을학기 첫 화요음악회의 문을 열었다. 장르의 경계를 없애고 음악 본연의 길을 찾는다는 포부로 출발한 색소폰 앙상블 팀 에스윗(여요한, 김수룡, 최영현, 장원진)은 소통을 바탕으로 색소폰 대중화에 힘쓰고 있는 팀답게 드뷔시의 「Suite bergamasque」, 바흐의 「Air」, 피아졸라의 「Libertango」, 엔니오 모리코네의 「Gabriel oboe」, 거쉬인의 「Oh! lady be good」, 「Frozen(겨울왕국 ost)」, 비제의 「Carmen fantasy」 등 클래식, 재즈, 팝, 가요에 이르는 다양한 곡들로 무대를 꾸몄다. 공연이 끝나갈 무렵,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색소폰이 가진 각기 다른 소리를 관객들에게 설명하며 보너스 무대 같은 재미있고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11.17 Seoul Theatrical Music Companions (STMC)

두 번째 화요음악회는 Seoul Theatrical Music Companions (STMC)라는 연주단체가 꾸몄다. 소프라노 채은희, 손현, 이윤주, 바리톤 권용만,

반주에 한미연으로 구성된 STMC는 극음악 레퍼토리를 연구하고 이를 연주, 보급하는데 목적을 둔 단체이다. 이날 미국의 현대오페라 작곡가 Seymour Barab의 40분 분량의 단막 코믹오페라 「행운의 장난」이 무대에 올랐다.

11.24 트리오 라우스

세 번째 화요음악회는 트리오 라우스가 〈Twentieth Century〉라는 제목으로 열었다. 트리오 라우스는 바이올린에 최유진, 첼로에 홍지연, 피아노에 송윤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곡은 Rebecca Clarke의 Piano Trio로, 절연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어서 연주된 Paul Schoenfield의 Café Music과 Astor Piazzolla의 Four Seasons of Buenos Aires는 재즈와 클래식이 융합되어 많은 청중들이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었다. 공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연주된 세 곡은 모두 20세기 이후에 작곡된 것으로,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졌던 20세기 음악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하였다.

For SNU family and Gwan-ak Residents_ Tuesday Concert Series

The SNU Tuesday Concert is a free art concert for SNU staff, faculty, students and local residents. In the second semester of 2015, a total of 6 concerts were organized from October 20th to December 15th at University Cultural Center (Building.73) at 4pm every Tuesday. S.With, STMC, Trio Laus, Ensemble Soave, and HCP (Harmonia Chamber Players) participated in the concerts.



12.1 양상블 소아베

12월 1일에 양상블 소아베의 연주로 네 번째 화요음악회가 열렸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찾아온 청중들을 위해 준비된 프로그램은 메시앙의 「시간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였다.

메시앙은 2차대전 발발 후 독일군의 포로가 된 채 수용소에서 이 음악을 작곡했다. 양상블 소아베의 밀도 있는 연주는 1월의 추위 속에 야외에서 동료 수감자의 연주로 초연되었던 당시의 상황과 작곡가의 심정을 청중에게 주기에 충분했다. 작곡 당시의 참담한 상황 속에서 메시앙을 지탱한 것은 그의 신앙이었으며, 양상블 소아베가 전하는 이야기에 청중들은 완전히 몰입했다.

마지막 음이 연주되자마자 양상블 소아베가 다음에 전해 줄 이야기가 무엇이 될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연주였다.



12.15 하모니아 챔버 플레이어스(HCP)

마지막 화요음악회는 12월 15일에 '하모니아 챔버 플레이어스(HCP)의 송년 콘서트'로 장식되었다. 현악 6중주라는 편성 안에서 각각의 연주자들이 지닌 색깔을 하나의 하모니로 만들고자 한다는 HCP는, 이 날 송년 콘서트라는 주제에 맞게 즐겁고 익숙한 곡들로 무대를 꾸몄다.

모차르트의 「Eine kleine Nacht Musik」, 파헬렐의 「Canon in D」 등의 고전 음악으로 시작하여 기타와 현악기의 합주가 인상적이었던 「Romance」, 타레가의 「Recuerdos de la Alhambra」 등이 연주되었고, 이어서 익숙한 영화음악들이 차례로 연주되었다. 끝으로 HCP는 다가오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깜짝 이벤트와 캐롤연주를 선사했다.

2학기 화요음악회는 다섯 명의 연주자가 선사하는 송년의 즐거운 분위기 속에 막을 내렸다.

새롭게 단장한 지식의 공간 음악도서관 탐방

지난 8월, 음악대학 도서관이 예술계 복합동(74동) 201호로 그 위치를 옮기며 새롭게 탈바꿈하였다.



기존에 55동 지하에 위치했던 음악대학 도서관은 73동으로 이전하면서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었고 더 넓은 공간과 쾌적한 실내가 학생들의 면학분위기를 증진시키고 있다. 또한 음악도서관과 멀티미디어 도서관이 분리되어 음반, DVD 등 풍성한 자료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였다.

대출 규정에도 변화가 있었다. 기존의 대출 규정이 교내 신분제에 따라 대출 권수나 일수에 제한을 두었던 것과 달리 학생, 강사, 교수 모두 똑같이 단행본 20책/30일, 악보 10책/10일, 멀티미디어 5개/10일로 대출 권(개)수가 확장되어 학생들의 이용이 더욱 편리해졌다. 하지만 넉넉해진 대출 규정에 따라 엄격한 연체료 시스템이 도입되었기 때문에 도서관의 이용규정을 잘 참조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겠다.

도서관이 이전하면서 많은 사항들이 개선되고 좋아졌지만, 새로운 도서관의 쾌적함과 편리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서관 사용의 주체인 학생들이 더 성숙한 도서관 예절을 지키려 노력해야 할 것이다.

Newly remodeled treasure house of knowledge_ Library Relocation

Last August, SNU music library moved to Room 201 of the Arts Research Center (Building .74) and has been providing a convenient study environment through better facilities and regulation.

Students should be fully aware of new library regulations and the use of facility information.



사회공헌의 밤을 더 밝게 비추다 서울대학교 사회공헌의 밤

서울대학교 글로벌사회공헌단(단장 : 안상훈)의 주최로 2015년 11월 12일 '서울대학교 사회공헌의 밤' 행사가 열렸다.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진행된 1부 음악회와 예술계 복합동에서의 2부 만찬까지 총 4시간 동안 진행된 이 행사는 서울대학교 재학생들, 동문, 교수 및 관악구 지역 주민들, 이에 더하여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사회공헌을 펼치고 있는 분들을 초청하여 추운 겨울 밤 의미있는 시간을 만들어 냈다.

1부 음악회에서는 서울대학교 음악 동아리 여민락과 합창단에서 준비한 공연 이후 SNU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무대에 올랐다. U. Giordano의 오페라 「페도라」 인터메조로 막을 연 사회공헌 음악회에서는 W.A. 모차르트의 「마술피리」, 「피가로의 결혼」에 등장하는 다양한 아리아를 비롯하여 레온카발로의 「Pagliacci」 중 인터메조, 도니제티의 「사랑의 묘약」,

푸치니의 「Gianni Schicchi」, 구노의 「Faust」, 베르디의 「La Traviata」의 각종 아리아, 슈베르트와 리스트의 「마왕」 등 다양한 성악곡이 연주되었다. 요한 슈트라우스 2세의 「Pizzicato Polka」와 「Auf der Jagd Polka」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1부의 마지막은 특히 더 뜻 깊었다. 전상직 서울대 음악대학 부학장의 곡에 'SNU 학생사회공헌단'이 가사를 쓴 'Up Song'을 주최자와 참가자가 모두 어우러져 울동과 함께 부르며 1부 연주회를 성황리에 마쳤다.

2부 만찬에서는 브라스 쿼텟(Brass Quintet)이 George Grideric Handel의 「The Royal Fireworks Music」 중 미뉴엣의 브라스 앙상블 버전, H.L. Walters의 「Instant Concert」, Jaime Teixidor의 「Amparito Roca」를 연주하며 만찬 분위기를 더욱 살려주었다.

사회공헌의 밤에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들의 훌륭한 연주가 더해져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

Brightened the Night of the Social Contribution

The Institute for Global Social Responsibility (IGSR)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ted an event 'The Night of Social Contribution' on November 12th, 2015. The event began with a performance at the Concert Hall, and later a dinner party held at the Arts Research Center. IGSR invited current SNU students, alumni, Professors, local residents, and other individuals who have been active social contributors through community activities. The event was a great opportunity to celebrate the many valuable social contributions of community members, and we sincerely hope that many similarly meaningful and constructive events such as this can be held in the future.



새롭게
시작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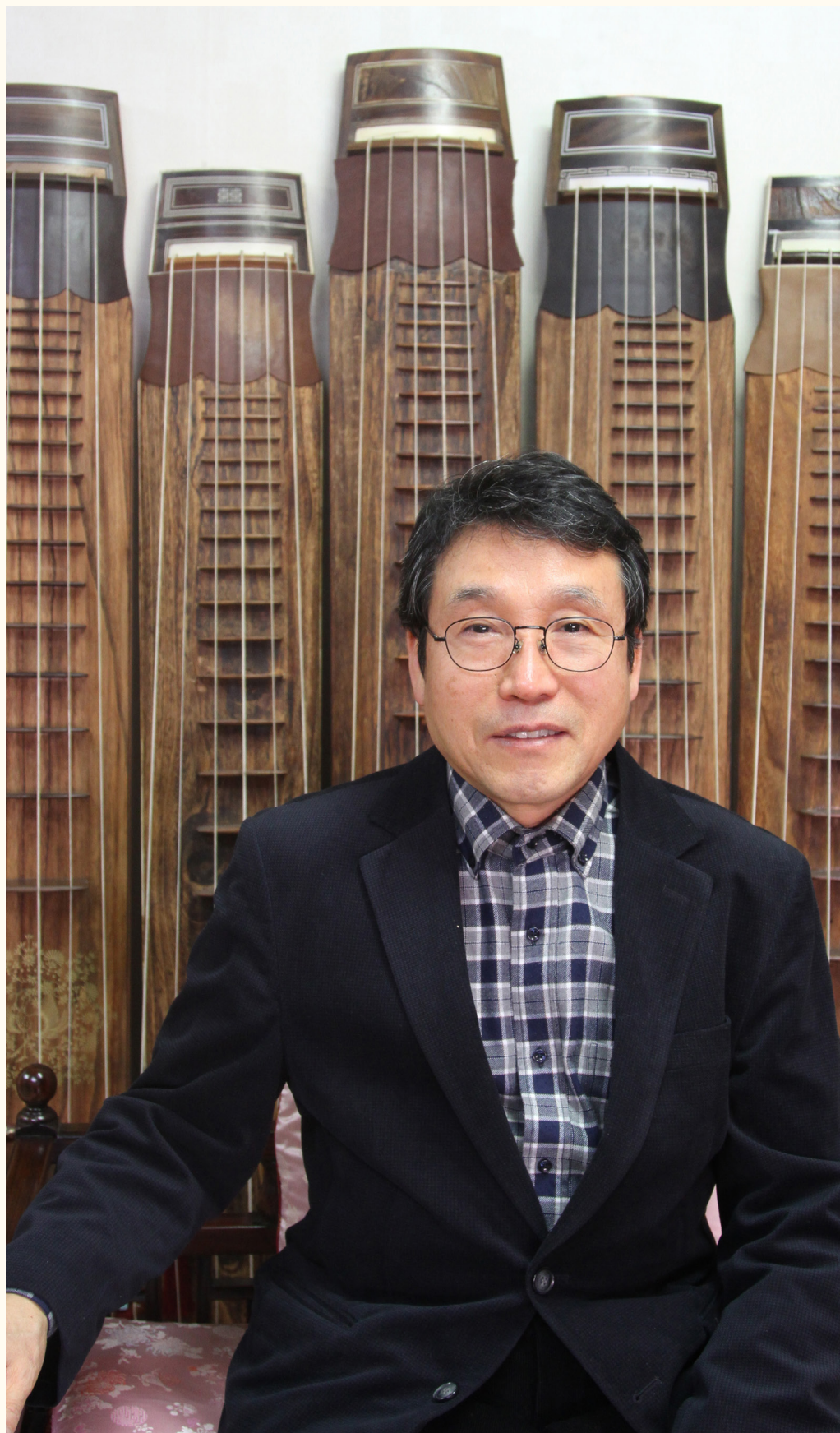
예술에의
여정

국악과
정대석 교수

Beginning New Journey of the Art _ Prof. Dae-seok Jeong

Professor Dae-seok Jeong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retired after completing his 9-year term. When he plays music on stage, he feels younger, and he said he intends to continue his musical career actively after retirement.

As a composer, he would like to bequeath our generation music through tradition, and we wish him all the best for his passion and commitment.



2007년부터 9년이라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동안 서울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쳐 온 국악과 거문고 전공 정대석 교수님이 올해 퇴임을 맞이하였다. 11월 18일 수요일에 열렸던 국악과 교수연주회는 정대석 교수님을 위해 동료 교수진과 학생들이 선물한 퇴임식과 다름없었다.

이 날 공연에서의 연주는 모두 정대석 교수가 작곡한 곡들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실내악 작품 명상」, 「가야금 독주곡 꽃시계」, 「향피리 독주곡 산촌의 아침」, 「대금 독주곡 메아리」, 「해금 독주곡 숲속의 비오는 날」, 「거문고 독주곡 무영탑」 등 6곡이 해금교수 양정숙, 가야금교수 이지영, 대금교수 임재원, 피리교수 김정아, 그리고 정대석 교수의 연주로 꾸며졌다.

교수연주회는 관객들의 큰 환호성과 박수갈채 아래 막을 내렸다. 이번 연주는 한 자리에서 보기 힘든 명인들의 연주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을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하려고 하는 철저한 직업 정신을 장인정신이라고 하듯 우리는 우리음악을 전공하여 그러한 정신을 가진 국악과 교수들의 명인정신을 본 공연을 통해 배울 수 있었다.

그리고 2016년 새해를 맞이한 1월, 인터뷰를 위해 국악과 정대석 교수님을 만나보았다. 퇴임 소감에 대해 정대석 교수님은 최고의 학생들이 있는 훌륭한 대학에 몸담고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답하였다. 9년동안 특별히 교수님의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물었다.

“매년 학생들과 캠프를 가서 시간을 함께 보내는데, 학생들이 열정이 정말 대단해요. 미리 어떤 미션과 준비가 주어지면 그에 대한 자기들의 음악을 스스로 만들어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것을 학생들이 해낼 때 깜짝 놀래요. 이 학생들이 참 앞으로 대단한 일을 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동계 학위식에서 한번 국악으로 전체 행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어요. 국악과가 창설된지 60여년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 음악을 내세울만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정대석 교수님은 거문고를 배울 당시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끝까지 예술을 놓지 않았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악에 대한 애정 또한 남달랐다.

“오늘날에는 넘치는 음악회들과 쏟아지는 자료들이 그만큼 쉽게 여겨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는 말과 함께, 친구들의 배려 또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료의 있으면 굉장히 힘이 되고,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죠. 앙상

블을 할 때도 서로 음악적으로 다루기도 하고 논쟁을 하면서 음악을 이어가는 것들이 굉장히 좋은 예술을 탄생시킨 것 같아요.” 교수님은 그 당시 자료도 구하기 어려웠고 음악회를 보기 어려웠던 만큼 하나 하나가 소중하고 보석같았다고 말했다.

퇴임 후의 계획을 묻자 “지금까지처럼 계속 무대에 설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어렸을 때 꿈이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설레고, 무대의 긴장감이 끝나고나면 기쁨도 있고 참 좋죠.”

음악을 할 때마다 젊어지는 것 같아서 행복하다고 말하는 정대석 교수님은 연주 뿐 아니라 매년 작곡에서도 두드러진 활동을 하고 있다.

오랜 세월 연주되는 음악들이 명곡이라고 불리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

그는 “한국음악의 레퍼토리가 많지 않아요. 역사는 긴데 반해 전해지고 있는 것이 많지 않죠. 오랜 세월 연주되는 음악들이 명곡이라고 불리듯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남을 수 있는 음악을 하고 싶습니다.”라며 그렇기 위해서는 “새로운 음악만 배우거나, 옛 것만을 추구하지 말고, 온고지신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옛것을 배워서 그것을 바탕으로 현재 시대의 음악을 하면 후대에는 그것이 명곡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 한국의 음악, 한국인의 정서가 들어있는 음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되고, 후손들에게 전해야겠다는 사명이 있습니다” 라고 덧붙였다.

서울대 교수로서는 퇴임하지만, 예술인으로서 정대석 교수님의 음악 활동은 멈추지 않는다.

학생들은 정대석 교수님의 변함없는 연주와 창작 활동을 통해 그를 계속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온고지신”과 “외유내강”의 정신으로 음악을 다져나가겠다는 정대석 교수님, 그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



호주로부터 찾아온 특별한 만남

지휘자 데이비드 로버트슨

지난 10월 28일,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반가운 손님이 방문하였다. 2014년부터 시드니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로 활동중인 지휘자 데이비드 로버트슨이다. 그가 이끄는 시드니심포니는 윤디 리, 바딤 레핀과 함께하는 내한공연을 앞두고 서울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음악대학 학생들은 마스터클래스와 조인트리허설을 통해 이들과 음악적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안녕하세요. 한국에 방문하신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

우선 학교 안에 건물들이 굉장히 인상깊었어요. 창 밖의 경치도 너무 아름다워서 계속 쳐다보느라 공부하는데 조금 힘이 들었구요.

오전에는 학생들과 마스터클래스를 하셨죠. 어떠셨나요?

학생들이 굉장히 잘해주었고, 저와 중요한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어요. 지휘를 배운다는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배움의 연장선입니다. 학생들은 모두들 훌륭한 음악가이지만 지휘에 있어서 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리고 스스로를 통해 음악을 표현하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지요.

오후에 시드니 심포니 오케스트라는 서울대학교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조인트 리허설을 할 예정인데요, 어떤 부분에 염두에 두고 연주를 하실 계획인가요?

우리는 보통 지휘자는 전체를 이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지휘란 모든 단원들의 재능을 가지고 지휘자 스스로 일종의 네트워킹이 되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휘자의 임무는 단원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원들이 서로 융화되도록 해주는 것이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전의 다른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지휘자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인상적이었는데요, “매 연주가 항상 같을 수는 없다. 중요한 것은 매 연주가 가능한 제일가는 연주가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곡마다 가장 좋았던 혹은 완벽했던 연주가 있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기 때문에 모든 연주에는 다양한 측면이 존재한다고 봐요. 따라서 곡에 대한 어떤 아이디어가 항상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포츠 경기와는 다르죠. 스포츠에서 누가 가장 빨리 달리는 사람인지, 혹은 누가 더 힘이 센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과는 다르게 연주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특정한 기준이 없으니까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인 연주란 표현에 있어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는 연주인 것 같습니다. 연주를 자신의 것으로 만든다고나 할까요.



A Special Visit from Australia_ David Robertson, Conductor

Conductor David Robertson and members of the Sydney Symphony Orchestra, as representative musicians of Australia, visited SNU College of music on October 28th. They had time to communicate with students through a masterclass and a joint rehearsal with the SNU Symphony Orchestra. Conductor David Robertson's helpful guidance and advice to the students was forthcoming, inspiring and of great value.

품격, 소통, 차별화 국악과 임재원 교수

2016년 1월, 국립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부임 후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임재원 교수님을 찾았다. 교수실에서 마주한 임재원 교수님의 얼굴은 수업시간에 마주했던 것과 변함없이 따스하고 온화한 느낌을 풍겼다.



Dignity, Communication, Differentiation _ Prof. Jae-won Lim

Professor Jae-won Lim of the department of Korean Music, was newly appointed as an artistic director at the National Orchestra of Korea (NOK). The NOK maintains a philosophy of “dignity, communication and differentiation” and when asked how Professor Lim intends to realize this philosophy in the NOK’s programing and concerts, he answered that he will make concerts that will be devoted to the public and have great artistry at their center. Also, he intends to boost programs through interacting with composers-in-residence and young composers.

첫 질문으로 국립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신 소감을 묻자,

아주 오래전에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낸 곳이라 친근한 고향에 돌아온 느낌이 크다고 말했다. 장충동은 어린 시절 애환이 서린 장소로 속속들이 잘 알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국립극장 주변 환경 또한 그때와 전혀 다를 것이 없다고.

하지만 예술감독으로써의 업무는 부담스럽다고 했다. “업무가 한 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데, 특히 국립 국악관현악단 공연의 기획, 레퍼토리 선정, 캐스팅 등 제작 단계부터 홍보, 관객개발 등 예술부문 제반 업무를 모두 결정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하는 자리여서 힘든 일을 맡았어(웃음)”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와 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비상근 예술감독으로 일하는데도 학교와 국립극장에 가야할 일이 많다보니 몸이 부지런해져야 하는 것, 짐이 좀 먼 것이 힘들다고 했다.

교수와 예술감독 두 업무를 모두 소홀히 하지 않기 위해서 국립 국악관현악단의 지휘는 최소화 할 것이며, 주로 부지휘자, 객원지휘자가 지휘를 맡고 있고 내년 초에는 상임 지휘자를 캐스팅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품격, 소통, 차별화”라는 운영 철학의 구체적 실현 계획을 묻자,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음악회, 예술성을 잃지 않는 공연 기획을 목표로 한다고 답했다. 또한 상주 작곡가와 젊은 작곡가가 소통하는 프로그램으로 예술성을 높일 예정이며, 파트별 실내악을 통해 연주 단원들의 기량에 있어서 차별화를 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이미 국립 국악관현악단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연주 컨셉(정오의 음악회, 마스터피스 등등)을 최대한 잘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로서, 그리고 국립 국악관현악단의 예술감독으로서 한국적인 음악이 어떤 음악이냐고 생각하시는지 묻자,

“일단 한국인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음악”이 한국적인 음악이라고 답했다. 그런면에서 꼭 한국 사람이 작곡한 음악이 한국적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며, 외국사람이 작곡한 음악은 모두 한국적이지 않느냐하면 그것도 아니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대학교 국악과 학생들에게 “현재는 음악학도이지만 미래에 한국음악계를 이끌어 나갈 재목이 되기 위해 확장 시절에 음악적 측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최대한을 배우고 익히고 정진할 것”을 부탁하셨다. 서울대학교 교수로서, 국립 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으로써 임재원 교수님의 앞으로의 모습이 기대된다.

전통을 안고 현재를 나아가는 “예인(藝人)” 국악과 이지영 교수

12월 겨울, 국악과 이지영 교수님의 연구실을 찾아갔다.

이지영 교수님은 아늑함이 느껴지는 연구실에서 차 한잔과 함께 따뜻한 웃음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매년 가야금 연주자로서 활발한 무대 활동을 하고 있는 이지영 교수님은 2015년까지 지난 2년간 서울대 음악대학의 부학장으로서 재직하기도 하였다. 재직하였던 소감을 묻자 교수님은 부학장이라는 자리는 교육과 연구만 해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행정과 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 많은 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음악대학에서 학생들이 지금보다 더 과의 경계를 넘어서 수업도 함께 듣고 연주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 전공의 학생들이 같이 만나서 작품 활동을 하면 폭넓은 사고를 하는 예술가가 되어서 더 멋진 활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지영 교수님은 다섯 살 때 전반적인 전통 예술을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처음 가야금을 접했다고 한다. 현재는 국악 실내악단 활동 및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다양한 곡을 소개하며 꾸준히 무대 활동을 하고 있다. “올해 미국 작곡가가 쓴 가야금 협주곡 초연을 했고, 2011년 전주세계소리축제에서 초청 받아서 새롭게 짠 산조를 협주곡으로 만들어서 연주하기도 했어요. 린 후이관이라는 대만 비파 연주자와 조인트 콘서트를 두 번 했는데, 중국 전통악기와 한국 전통악기가 만나 새로운 현대적인 곡을 만들어 낸 것이 기억에 남고 재미있었어요”

이지영 교수님은 가야금의 전통적인 특징과 기법이 요즘 시대에는 현대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 매력이라고 말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은 동양과 서양, 다양한 악기들의 새로운 조화를 만들거나 창작곡을 연주하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예로 “미국 작곡가 도널드 워맥이 쓴 가야금 협주곡을 초연하고, 탄생할 수 있게 한 것에 대해 연주자로서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라고 하였다.

교수님은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학교를 졸업하면 그때부터 아티스트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하였다. “4학년이 되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아티스트 활동을 해야해요. 본 학교에서는 커리큘럼대로 가르칠 수 밖에 없지만 학생들은 정말 많은 독서와 감상을 하면서

어떤 음악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할지 생각해야 하죠” 덧붙여 교수님은 “악기연습도 물론이지만 인문학적 소양이 있어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어요. 악기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더 많아요. 그런것에 따라서 어디까지 발전할 수 있는지가 달라지더라고요.” 라며 애정 어린 조언을 남겼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교수님의 대화에서는 ‘예술’의 길을 찾고자하는 열의가 느껴졌다. 2016년에도 국내외 해외를 오가는 많은 일정을 앞두고 있다는 이지영 교수님. 앞으로도 이지영 교수님의 손끝에서 탄생할 또 다른 음악이 기다려진다.



Embracing Tradition, and moving forward_Prof. Ji-young Li

Ji- Young Li, Gayageum professor of Korean music, talked about her thoughts on working as associate dean for two years and her artistic philosophy. Professor Li always strives to work in new and innovative ways and sh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being an artist to her students.

설레는 시작을 연주하는 Karis Quartet

카리스 콰르텟은 1st 바이올린 김은지, 2nd 바이올린 신동찬, 비올라 송가은, 첼로 강민지로 이루어져 있다. 2014년부터 마음이 맞는 친구들과끼리 팀을 결성하여 연습하기 시작, 서울대학교 현악과에서 주최하는 Spirit of Snu Strings에 선발되었고 금호 영체임버 오디션에 합격하여 2016년 4월, 9월 2차례에 걸쳐 예술의전당 IBK홀과 금호아트홀에서 연주를 앞두고 있다. 또한 2016년 1월에 아트실비아 실내악 오디션에서 영실비아상을 수상하는 등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되는 팀이다.

안녕하세요, 팀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제1바이올린 김은지, 제2바이올린 신동찬, 비올라 송가은, 첼로 강민지로 구성된 현악4중주 카리스입니다.

언제부터 팀을 결성하셔서 연습하셨나요?

기악과 필수과목인 실내악을 이수하기 위해 작년에 가장 친한 동기들과 함께 팀을 결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결성 이후 실내악 수업을 이수하는 것을 넘어 카리스 콰르텟으로써 꾸준한 연주활동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연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곡 선정과 연습에 있어서 각자의 역할이 있나요? 있다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계신가요?

각자의 역할을 정해놓고 연습을 하지는 않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서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지적해주면서 그 부족함을 채워나갑니다. 누군가 독단적으로 팀을 이끌어나가려고 하는 순간 가족같은 팀의 분위기는 무너질 것 같아요. 실내악은 개인플레이가 아니라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연습하면서 갈등이나 어려운 점은 없셨나요?

실내악 연습시간을 정하는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희는 주로 수업 전 아침시간을 활용했어요(아침 연습이 힘들기는 하지만요). 또 실내악 수업을 듣는 다른 팀들을 보니 같은 학번 친구들과끼리 구성된 팀은 저희뿐이더라구요. 연습할 때 안 맞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저희는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지적을 해줍니다. 그래서 연습하는데 있어서는 문제가 많이 생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희가 정말 친하기 때문에 더 가능한 일이죠.

특별히 기억에 남는 연주가 있다면?

저희는 작년에 구성되어서 연주보다는 오디션, 실기시험을 준비해왔습니다. 작년 금호 영체임버 오디션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저희끼리 열심히 준비한 첫 번째 무대였기 때문입니다. 올해 있을 연주들이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카리스란?

김은지 : 나에게 카리스란 가족이다.

신동찬 : 나에게 카리스란 소중하고 좋은 추억이다.

송가은 : 나에게 카리스란 앞으로가 기대되는 팀이다.

강민지 : 나에게 카리스란 도전이다.



Performing Joyful Start_Karis Quartet

Karis Quartet (1st Vn. Eunji Kim, 2nd Vn. Dongchan Shin, Va. Gaeun Song, Vc. Minji Kang) started their ensemble as a gathering of closest friends. They were selected in the Spirit of SNU Strings organized by the SNU String department. Also, they entered the Kumho Young Chamber audition, and they are soon to perform at IBK hall, Seoul Art Center and Kumho Art Hall.



일종의
'소음'인 타악기의
소리를
음악적으로

‘음악’의 기술, ‘음악’을 위한 인성을 익히다

타악레슨 / 최경환 교수

한 학기가 끝나가는 한산한 겨울날, 타악 레슨 수업이 열리는 타악기실을 찾았다. 타악 레슨은 타악기 전공 학생들이 개인 지도를 받는 수업이다. 수업을 담당하시는 최경환 교수님은 열정과 따뜻함으로 수업을 이끌어갔다.

개인 레슨 수업인 만큼 학생의 연주와 교수님의 지도가 교대로 이어졌다. 학생이 연주를 하고 나면, 자세부터 타점, 음색까지 일종의 ‘소음’인 타악기의 소리를 음악적으로 다듬어주셨다.

학생은 여러 번 교수님이 말씀하신 점을 생각하고 반복하여 연습하며 수업이 끝날 때쯤에는 더 좋은 소리를 만들어냈다.

최경환 교수님은 서울대학교에 들어오는 타악 전공생들은 이미 실력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이미 가진 능력과 잠재된 가능성을 최대한 이끌어내도록 노력하신다고 하셨다. 타악기라는 특수적인 악기의 특성상 오케스트라에 잘 맞는 성향을 가진 학생과 솔리스트의 역량을 가진 학생에 따라 다르게 맞춤 지도함으로써, 입학 당시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이끌어 간다는 수업 목표를 가지고 계셨다. 뿐만 아니라, 타악기를 연주함에 있어 기술적인 측면도 중요하지만 협동, 배려 등 인격적인 면에서의 교육에도 집중하고 계심을 알 수 있었다.

한 수강생은 보통 오케스트라 곡을 많이 지도하는 다른 학교와는 달리, 서울대학교의 타악 레슨에서 최경환 교수님은 솔로곡도 비중 있게 다루셔서 다양한 곡을 심도 깊게 익힐 수 있다고 하였다. 또 다른 학생은 교수님께서 타악기실에 자주 계시기 때문에 수업시간 외에도 자주 연습할 때 봐주시기 때문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시향 탐파니 수석 연주자로서 활동하셨던 경력을 바탕으로 연주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점이 타악 레슨 수업의 큰 장점이라고 하였다.

다방면으로 연주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시는 타악 레슨 수업. 서울대학교 타악기 전공생들의 뛰어난 연주 실력 향상에 힘쓰고 계시는 최경환 교수님과 타악 레슨 수업을 응원한다.



Learning Techniques of Music, Learning Personality for Music_ Percussion Lesson/Prof. Kyung-hwan Choi

Private percussion lessons have been opened to percussion majors. Professor Kyunghwan Choi's varied approach means that he teaches depending on students' dispositions as soloists or orchestra players due to the specialty of percussion instruments. Professor Choi focuses on teaching not only performance techniques but also personal and interpersonal attributes such as cooperation and consideration of other performers.

서양음악연구소 학술포럼

I. K-pop 토대연구

2015년 9월, 서울대학교 220동에서 서양음악연구소의 학술포럼이 열렸다.

이번 학술포럼에서는 해외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한국 대중가요의 인기를 반영하여 영국에서 형성된 케이팝 향유문화에 대한 주제가 논의되었다.

현 리버풀대학 교수인 엄혜경은 'K-pop Cover Dance in the UK and Global Youth Culture in the Making: The Converge of Cosmopolitanism, Cultural Diplomacy and Brand Nationalism' 이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엄혜경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영국에서의 케이팝 팬덤은 다문화화(multicultural) & 다인종적(multi-ethnic), 국제적(Cosmopolitan), 참여적 성격을 띠고 있다. 라이브 콘서트와 굿즈 등으로 일종의 국가 브랜드를 형성한 케이팝이 다른 문화권 사람들의 공통감을 만드는 구실을 형성하면서 커버 댄스를 통한 참여문화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이 요지이다.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한 엄혜경 교수의 연구는 해외에서의 케이팝 실태의 한 모습을 조망해내며 흥미를 이끌었다.

Academic Forum by SNU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1

_Basic Research Seminar about K-pop

At the Basic Research Seminar by the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Professor HyeKyung Um (Liverpool University) presented her research titled 'K-pop cover dance in the UK and Global Youth Culture in the Making'. In this research, she shed light on the enjoyment culture of K-pop in the UK.

2. 음악분석포럼

깊어가는 10월의 마지막 날,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와 한국음악학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서양음악이론학회가 후원하는 음악분석 포럼이 개최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에는 영국 리버풀대학교 음악대학 학장이자 세계적인 학술지<Music Analysis>의 편집위원장이신 Michael Spitzer교수가 참석하여 기조강연을 하였다. 또한 한국의 젊은 음악이론가 계희승, 조현리, 정희원 박사가 최근에 자신들이 연구한 논문을 발표하여 신진학자들의 발표 또한 만나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다.

Spitzer교수는 'Analysing and Testing the Perception of Emotion in Bach's Sonata for Unaccompanied Violin No.1 in G minor, BWV 1001' 라는 주제로 Bach의 바이올린 독주 소나타 1번을 가지고 음악적 감정과 예술음악작품의 구조적 특징 간의 관계에 주목한 연구를 소개하였다.

다음은 'Vitellia's Ambivalence : Identifying and Performing'이란 제목으로 한양대학교 음악연구소 전임연구원이신 계희승 연구원의 발표가 이어졌다. 모차르트의 '마지막' 오페라 '티토의 자비'의 트리오 'Vengo... aspettate... Sesto!...' (No.10)의 음악과 가사 사이의 긴장을 통하여 드러난 비텔리아의 두 가지 모순된 감정에서 시작하여 이 긴장감이 오페라 무대에 주는 강력한 효과에 대해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조현리 박사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뤄지는 재귀(Recursion) 개념이 음악에서는 아직은 애매하게 남아있음을 지적하며 음악적 재귀개념에 관하여 'Presenting and Representing Musical Recursion'이란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정희원 박사가 'The Augmented-Sixth Chords in Chopin's Music: The Case of Chopin's Nocturne, Op.15 No.3'을 발표하였다. Chopin의 Nocturne Op.15 No.3에 드러난 음도 6,5의 반음계적 변화에 주목하여 쇼팽의 새로운 증6화음의 사용과 그것이 음악의 구조에 미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였다.

학술적 토론이 꽃피운 뜻 깊은 자리를 계기로 더 많은 학문적 결실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서양음악연구소와 한국음악학회의 앞으로의 행보를 기대해본다.

Academic Forum by SNU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II

_The Music Analysis Forum

The Music Analysis Forum was hosted by the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and the Korean Society of Music Research, and sponsored by the Musicological Society of Korea. Of particular note in this forum, Professor Michael Spitzer, chief editor of the international academic journal <Music Analysis> and music department chair at Liverpool University, gave a keynote speech. Also, it was significant to meet three young Korean music theorists, Dr. Heeseung Kye, Dr. Hyunli Cho and Dr. Heewon Chung, as they presented their recent research papers.



3. 음악사포럼

2015년 11월 6일 금요일 오후 3시 220동 대형강의실에서 서양음악연구소의 마지막 학술행사인 Music History Forum이 열렸다. Rutgers University의 George B. Stauffer 교수를 비롯해 성신여대의 이가영 교수, 충북대학교의 이미배 교수의 3가지 주제로 포럼이 꾸러졌다.

첫 번째로 Stauffer 교수가 "The mass in b minor : Bach's musical last will and testament"라는 주제로 포럼의 문을 열었다. 모두 잘 알고 있는 바흐의 B단조 미사가 어떻게 B단조 미사라는 이름을 얻게되었는지 등 작품과 관련된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좌중을 압도했다.

다음으로 이가영 교수는 "Some thoughts on Bach's oratorios : devotional or theatrical?"에 대해 강연하였다. 앞선 강연과 비슷한 주제로, 바흐의 교회 음악인 오라토리의 극적인 측면, 춤음악적인 측면이 있음을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미배 교수의 "Schumann's romantic transformation of fugue: 《Fugengeschichte》, The Well-Tempered Clavier, and Vier Fugen, op. 72" 강연에서는 슈만 음악의 낭만적 특징을 맞볼 수 있었다.

Music History Forum은 '음악사'가 어떻게 연구되고 있는지 한 단면을 보여준 학술행사였다. 흥미로운 주제들의 강연이 모두 끝난 뒤 서양음악연구소 연구원 분들을 비롯한 서울대학교 학생들 등 학술행사에 참여한 사람들의 질문 및 토론으로 학술행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다. 내년에도 열릴 서양음악연구소의 다양한 학술행사를 기대해본다.

Academic Forum by SNU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 III

_The Music History Forum

The Music History Forum, one of the Western Music Research Institute's academic conferences, was held on Friday, November 6th 2015. Professor George B. Stauffer (Rutgers Univ.), Kayoung Lee (Sungshin University) and Meebae Lee (Chobuk National University) gave presentations discussing three subjects in relation to Bach and Schumann.



소통을 위한 심 없는 노력 음악대학 학생회 <심표>

음악대학 학생회가 다시 생긴 이후로 두 번째 선거에 당선되었는데, 선거에 나서겠다는 결심을 한 계기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사실 저에게도 학생회나 선거와 같은 단어들은 먼 거리에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출마에 제의를 받은 뒤 학생회의 역할과 의미에 대해 거듭 생각해 보았고, 고심 끝에 학생회라는 것이 학생 자치를 위하여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는 생각이 들어 선거에도 출마하게 되었습니다.

음악대학 학생회가 재수립된 지난 첫 1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 말해주세요.

우선 누구나 공감하는 작년 음악대학 학생회의 가장 큰 성과라 함은 13년 간 공백기에 머물러 있던 음악대학 학생회를 재정립하고 그 기강을 다시 바로잡은 것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문제들에 있어서 학생회를 통해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반영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들이 아니라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부분일 수 있지만 음악대학 내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가지는 연습실 문제나 각 전공별 교과과정 등 내부적 요인들에 학생회가 개입하게 되면서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으로는 음악대학 축제가 새로 생겨난 것을 들 수 있겠는데요, 음악대학만의 독자적인 활동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만의 축제를 만들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음대의 학생들이 지난 1년을 통해 학생회에 좀 더 친근한 이미지를 갖게 된 것 같습니다. 학생들과의 의사소통, 그리고 학교와 학생들 간 의사소통은 어떠한 방식으로 하나요? 학생들과의 가장 두드러지는 의사소통 방식을 꼽으라 한다면 페이스북 등의 SNS를 들 수 있습니다. SNS상에 게재되는 학생회의 글에 대한 댓글 뿐 아니라 페이스북 메시지나 카카오톡 Yellow ID, 빨간 우체통 등을 통해 학생들은 저마다의 의사나 궁금증을 학생회에 직접 전달해 옵니다. 오프라인에서도 각 과의 학생들이 과대표 및 학과장들에게 전달하는 이야기를 주기적인 회의를 통해 수집하고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학교와의

의사소통은 평상시에는 음악대학 행정실이나 총학생회와의 소통을 통해 학교에 학생회의 의견을 전달하는 경우가 많으며 주기적으로 열리는 교수님들과의 면담 시간을 통하여 음악대학에 최적화된 문제 해결을 위해 소통하고 있습니다.

심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심표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는 무엇인가요? 2016년 1월 저희 학생회에서 현재 가장 집중하여 추진하고 있는 일은 2016년 새내기배움터 준비입니다.

숙박 장소를 포함하여 예산 문제, 참여 인원 문제 및 안전 관련 문제 등을 모두 총괄하여 저희가 진행하기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의와 기획사와의 접촉 등을 활발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공약으로도 내세운 음악대학 내 낭비되고 있는 공간들을 재정비하는 일이 저희가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슈입니다. 단기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당연히 아니지만 행정실 및 교수님들과의 면담을 통해 장기적으로 변화시켜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음악대학 복사실에 대해 궁금해 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제17대 학생회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음악대학 학생들과 가장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들이닥쳐 적잖이 당황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즉각적인 대응이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문제라 저희 학생회도 부지런히 이를 해결하기 위해 뛰어들었습니다.

혹시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학생들은 학생회가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일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학생회는 내부적으로도 다양한 변화나 보수작업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학생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격려가 학생회에 큰 힘이 됩니다. 또한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좋으니 언제든지 학생회에 주저하지 마시고 건의나 질문사항을 말해주세요. 음악대학 학생들과 더욱 활발한 의사소통을 이어가는 음악대학 학생회가 되고 싶습니다!

Nonstop Effort to communicate_The College of Music Student Union“Syum-Pyo”

In December of last year, Sanha Lee was elected as the 17th student president of <Syum-Pyo>, the student union at the College of Music. <Syum-Pyo> constantly tries to interact with students and work actively for the students' interests and concerns. Through this interview, we heard the future plans of the new president and <Syum-Pyo> now that the election is over.

26회 클라라 하스킬 국제콩쿨 파이널리스트 피아니스트 지유경

지유경(피아노 · 07)선배님으로 2015년 스위스 브베에서 개최된 26회 클라라 하스킬 국제 콩쿨(클라라 하스킬 상은 이번 회에 수여되지 않음)에서 파이널리스트에 올라 특별상 네 개 중 세 개(청중상, 젊은 평론가상, 어린이 청중상)를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현재 하노버 음악대학에서 유학 중인 지유경 선배님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선배님의 음악과 삶의 철학에 대해 들어보았다.

연주자로서 연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선 내가 그 음악을 통해 무엇을 느끼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싶은지 아는 것이 가장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제대로 해 냈을 때, 그 이야기가 어떻게 받아들여질지는 청중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또한 우리의 매일 매일이 새로운 것처럼, 한 번 만들어 놓았던 이야기는 언제나 변할 수 있고, 그래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새롭지 않은 것은 죽은 것이니까요. 같은 맥락으로 무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몇 백 년 동안 수도 없는 연주자들이 연주해왔고, 얼마든지 쉽게 명반을 찾아서 들을 수 있는데, 왜 그 곡을 내가 그 순간 무대에 올려야 하는지 증명해 내는 것이 연주자로서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독일 음악대학 기악과의 교육 목표는 전문 연주자 양성이고, 이것이 교육 과정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하노버 음악대학의 경우 매주 90분씩의 개인 레슨과 그룹레슨 시간이 있고, 한 학기에 적어도 한두 번 정도 공개적으로 클래스 연주가 열립니다. 결국 누구나 거의 매주 학우들 앞에서, 한 학기에 한번은 외부 관객들 앞에서 연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음대 연주에 오는 관객들은 상당히 높은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관객들 앞에서 연주를 하고, 반응을 살피는 것도 큰 공부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의 힘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더 강력하고 특별합니다.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가 전문 연주자라면 독일에서 공부해 보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연주자에게 콩쿨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큰 콩쿨에서 입상한 후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나요?

제가 콩쿨을 나가는 이유는 더 많은 청중을 만나고, 기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콩쿨에서 얻은 결과들 자체가 제 자신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번 콩쿨은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또한 큰 무대에서 온 관객의 집중을 받으며 연주해 본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배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몇 달 전, 스트레스를 아주 많이 받고 있는 상태에서 한 번 스위스인 성악가 친구를 만났었습니다. 속이 새카맣게 타 들어가고 있는 저를 보고 친구가 말하더군요. “네가 당장 집이 있고, 먹을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1년 후에도 그럴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네가 하는 걱정들 모두 사실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단지 감사해야 한다고 하는 친구의 말을 듣고 한 대 얻어맞은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매 순간 감사하고 살아야 합니다.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그 상황을 바꾸면 됩니다. 결국 그 상황이 발생한 이유는 내 스스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계신데 그곳의 교육이나 음악 환경은 어떠한가요?

A Finalist, the 26th Clara Haskel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_ Pianist Yu-Kyeong Ji

During the Clara Haskel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2015, held in Vevey, Switzerland, Yu-kyeong Ji (Piano, entered 2007) was honorably awarded three special prizes (the Young Public Prize and Young Critics Audience Prize) out of four as a finalist. Through this interview she talked about her music and life philosophy.

악기기증

세계적인 바이올린 제작자 이주호 교수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에 바이올린 기증

시카고 바이올린제작학교의 이주호 명예교수가 서울대학교 음악대학을 위해 바이올린을 기증하였다.

이주호 교수는 Mittenwald 바이올린 제작학교를 졸업한 뒤 1968년 7월 독일에서 동양인 최초로 '마이스터'(Meister) 칭호와 마이스터 시상식에서 금메달까지 받았고, 평생 360여개 이상의 현악기를 제작해왔다.

Internationally recognized luthier, Professor Tschu-Ho Lee, donates a Violin to The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Tschu-Ho Lee (Director Emeritus) at Chicago School of Violin Making donated a Violin to the College of Music, SNU. Tschu-Ho Lee is a graduate of the State School of Violin Making.



이주호 교수 약력

- ▶1956~63 : KBS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 · Mittenwald 바이올린 제작학교 졸업
- ▶1968 : 독일 정부로부터 Master's Certificate 수여
- ▶1975 : K.Warren&Son 바이올린 제작학교 공동설립
- ▶1998, 2006 : Violin Society of America 국제 경연대회 기술 심사위원

발전기금 출연자 명단

(단위 : 원)

출연자명	기금용도	기금명	납입금액	납입일자
(재)관악회	위임	2015년음대동문음악회지원	10,000,000	2015.08.03 ~ 2015.11.26
(주)나인정보시스템	위임		1,000,000	
(주)세오	위임		2,000,000	
강선하	학술	이론전공장학금	500,000	
김경아	위임		6,000,000	
김규동	학술		200,000	
김미영	시설물		400,000	
김민정	학술	이론전공장학금	200,000	
김민채	위임		200,000	
김우진	학술	이론전공장학금	1,600,000	
김우진	위임		1,000,000	
김현희	위임	해금전공기금	300,000	
박미혜	학술	태리장학금	2,000,000	
송경희	학술	송경희 장학금(국악이론)	300,000	
송정민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400,000	
심새미	학술		200,000	
양경숙	학술	해금전공장학금	900,000	
이돈응	위임		300,000	
이신우	위임		150,000	
이주은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1,000,000	
이지영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300,000	
인송문화재단	학술	장학	6,000,000	
장미희	위임		300,000	
정대석	위임		10,000,000	
정일영	위임		500,000	
조이진	위임	관악전공기금	3,000,000	
주윤정	위임		500,000	
최경환	시설물	관악전공기금	300,000	
최윤진	학술	가야금 발전 장학금	170,000	
풍강산업(주)	위임		400,000	
허익수	위임		200,000	
황은상	위임		1,000,000	
후원자00415	위임		300,000	
총합계			51,620,000	

발전기금 참여안내

●무통장입금 (예금주 : 서울대발전기금) ●농협 079-17-000136 ●신한 100-014-328209 ●우리 1006-601-280134

* 신용카드, 자동이체(CMS), 지로 방법으로 기부가 가능 합니다. * 유증 및 부동산 등 현물자산 기부를 희망하실 경우 담당자가 상담해 드립니다.

* 기타 문의는 서울대학교발전기금(02-880-8004)으로 연락 주십시오.

2015학년도 2학기 콩쿠르 입상자

성악과

성 악	이혜진(12)	2015 서울벨베테데레콩쿠르 2위
		제 8회 광주성악콩쿠르 3위
		제 33회 대구성악콩쿠르 최우수상
		2015 파파로티성악콩쿠르 2위
		제 55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제 28회 한국성악콩쿠르 1위
	길병민(13)	제 8회 광주성악콩쿠르 1위
		제 33회 대구성악콩쿠르 대상
		제 55회 동아음악콩쿠르 성악 남자 2위
	김수경(13)	제 24회 성정음악콩쿠르 성악 대학일반여자 최우수상
		제 33회 대구성악콩쿠르 장려상
		제 28회 한국성악콩쿠르 대학여자 3위
	이해원(13)	제 41회 중앙음악콩쿠르 성악 여자 3위
		제 64회 이화경향음악콩쿠르 성악 대학일반여자 1위
	장연주(13)	제 20회 음악춘추콩쿠르 성악 대학여자 1위
제 21회 수리음악콩쿠르 성악 대학일반여자 2위		
제 24회 성정음악콩쿠르 성악 대학일반여자 금상		
제 1회 한국성악가협회 국제성악콩쿠르 대학일반여자 1위		
제 55회 동아음악콩쿠르 성악 여자 3위		
정인호(13)	제 6회 연지예술가곡콩쿠르 1위	
	제 28회 한국성악콩쿠르 대학남자 장려상	
이은수(14)	한국 영아티스트 콩쿠르 2위	
백유진(14)	제 28회 한국성악콩쿠르 2위	

작곡과

작 곡	이성현(14)	제네바 국제음악콩쿠르 관객상, 젊은 관객상, 음악학 학생들이 수여하는 학생상 2016 ISCM WORLD MUSIC DAYS 입선
-----	---------	---

기악과

피아노	김지영(15)	제 55회 동아음악콩쿠르 3위
	임성현(11)	제 66회 Viotti International Music Competition Soroptimist Club Prize
바이올린	김예진(13)	2015 TNB international artist audition : 2nd prize (artist - ensemble 부분)
		The 2nd Edition East Coast International Competition : 1st prize
		The first Manhattan International Competition : 2nd prize
첼 로	강예주(14)	제 24회 성정음악콩쿠르 첼로 대학부 1위
		제 7회 코리아헤럴드음악콩쿠르 첼로 대학부 1위

Brevi! Prize Winner

더블베이스	이정수(15)	제 6회 한국콘트라바스협회콩쿠르 대학부 1위
		IBS 국제콩쿠르 2위
		해외파견 콩쿠르 1위
오보에	윤성영(15)	제 55회 동아음악콩쿠르 3위
	임현애(13)	제 55회 동아음악콩쿠르 2위
바 순	전지수(13)	제 55회 동아음악콩쿠르 1위
트럼펫	안석영(13)	제 10회 제주국제콩쿠르 2위

국악과

국 악	오지현(13)	제 33회 신라전국국악대제전 일반부 현악 준우수상
	장예은(14)	제 25회 김해전국가야금대회 대학부 대상
	박병재(14)	제 4회 영암김창조전국국악대전 일반부 관악부문 최우수상
		제 15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관악부 우수상
		제 13회 무안 전국승달국악대제전 관악부 최우수상
	차승현(14)	제 35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피리부문 금상
	문 숙(14)	제 35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거문고부문 금상
	김예지나(14)	제 35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아쟁부문 동상
	정하은(14)	제 35회 온나라국악경연대회 거문고부문 동상
	박지현(14)	제 42회 춘향국악대전 기악현악병창 일반부 장려상
		제 5회 의령우륵탄신기념가야금대회 대학부 최우수상
	윤지현(14)	제 39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대상
	박나영(14)	제 39회 전국탄금대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우수상
	김성아(15)	제 14회 전국정가경창대회 일반부 은상
	김희진(15)	제 13회 무안전국승달국악대제전 관악부문 대상
	정누리(박)	제 41회 전국 난계경연대회 대상(대통령상)
	조은결(석)	제 24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일반부 금상
	김빛나(석)	제 42회 춘향국악대전 기악현악병창 일반부 대상
	박명규(10)	제 35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대금부문 은상
		제 25회 KBS 국악대경연 관악부문 장원
	김다혜(11)	제 25회 김해전국가야금대회 대학부 우수상
	이서영(11)	제 4회 영암김창조전국국악대전 일반부 관악부문 최우수상
	선찬주(12)	제 25회 김해전국가야금대회 대학부 최우수상
	신유진(12)	제 35회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판소리부문 동상
	김대운(12)	제 25회 KBS 국악대경연 성악부문 장원
		선가 김월하선생 추모20주기 제4회 전국정가경창대회 최우수상(월하상)
	임혜정(12)	제 15회 명창 박록주 전국국악대전 관악부 최우수상
	정나영(13)	제 24회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회 대학부 은상
임도경(13)	제 4회 영암김창조전국국악대전 일반부 현악부문 최우수상	
장명서(13)	제 18회 전국정가부안경창대회 가곡, 가사부 금상	

성악과 Department of Vocal Music

연광철 교수

Bayreuth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Die Walküre”와 “Der fliegende Holländer”의 주역으로 출연

Professor Gwang-chul Yeon, taking leading parts in the opera “Die Walküre” and “Der fliegende Holländer” at the Bayreuth festival.

베이스 연광철 교수는 2015년 7월부터 8월에 걸쳐 독일 Bayreuth 페스티벌에서 오페라 “Die Walküre”와 “Der fliegende Holländer”에서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11월 18일~22일 예술의 전당에서 “Der fliegende Holländer” 주역으로 출연하였으며, 12월 19일에는 충주 문화회관에서 독창회를 하였다.

전승현 교수

도쿄 산토리홀에서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주역으로 출연

Professor Seung-hyun Cheon, taking a leading part of opera “Tristan and Isolde” at the Tokyo Suntory Hall.

베이스 전승현 교수는 2015년 9월 12~14일 일본 요미우리 오케스트라와 도쿄산토리홀에서 오페라 ‘트리스탄과 이졸데’ 주역으로 공연을 하였다. 11월 13일 성남 아트센터에서 Mattina 콘서트로 독창회를 하였고, 12월 29일 서울 바로크 합주단 50주년 기념 베토벤 나인 심포니 베이스 주역가수로 공연 하였다.

이용훈 교수

미국 Metropolitan Opera House 에서 오페라 “Il Trovatore” 주역으로 출연

Professor Yong-hun Lee, taking a leading part in the opera “Il Trovatore” at Metropolitan Opera House in the US.

테너 이용훈 교수는 2015년 8월부터 10월에 걸쳐 미국 Metropolitan Opera House에서 오페라 “일 트로바토레” 주역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11월과 12월에는 영국 Royal Opera House 에서 오페라 “카르멘”과 “카발레리아 리스티카나”에 연달아 출연하며 성공적인 연주를 하였다.

서혜연 교수

9.12~12.26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박물관 토요일음악회’의 기획 및 음악감독

Professor Hye-yun Seo, from September 12th to December 26th directing the ‘Museum Saturday Concert’ as a Music director at Seoul Museum of History.

소프라노 서혜연 교수는 2015년 9월 12일부터 12월 26일까지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진행된 ‘서혜연 교수와 함께하는 박물관 토요일음악회’의 기획 및 음악감독을 맡아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선보이며 호평을 받았다.

10월 7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성악과 동창회 주최로 열린 ‘백학음악회’에서 연주하였으며, 같은 달 15일에는 강동아트센터가 기획한 ‘세계의 명가곡, 한국가곡vs세계유명가곡’ 무대에서 연주하였다.

11월 13일 세종 체임버홀에서 열린 ‘원미동인회 창립 20주년 기념 음악회’에 출연하였고, 12월 26일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열린 박물관 토요일음악회 ‘Adios 2015 송년음악회’에서 연주하였다.

작곡과 Department of Composition

[작곡 전공 Composition Major]

정태봉 교수

“미래악회 40회 작품발표회”에서 <비올라를 위한 길 IV> 초연

Professor Tai-Bong Chung, premiered “Gil IV for Solo Viola” at the 40th Perspective Composer’s Groupconcert.

정태봉 교수는 2015년 11월 1일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미래악회 제 40회 작품발표회”에서 <비올라를 위한 길 IV>(2015)가 초연되었고, 11월 7일 진주시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산학협력관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상근 국제 학술대회 2015”에서 “이상근의 예술가곡에 나타나는 기보상의 문제점”의 주제로 발표하였다.

이돈웅 교수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에서 <소리 추적 II>(Sound Trail II) 발표

Professor Don-oung Lee, presented “Sound Trail II” at 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

이돈웅 교수는 2015년 10월 3일 예술의전당 자유소극장에서 한국전자음악협회 주최의 서울국제컴퓨터음악제(Seoul International Computer Music Festival)에서 Sound Trail II (소리 추적 II)를 발표하였다. 그리고 11월 19일 프랑스 리옹의 Musee des Confluences(콩플루앙스 박물관)에서 리옹에 소재하고 있는 GRAME 전자음악연구소 주최의 한불수교140주년 기념 음악회인 Concert Korean electro-acoustic music society(한국전자음악협회의 연주회)에서 전자음악 “Butterfly effect(나비효과)”를 발표하였다. 또한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 연구과제로 “인간 연주기법을 구사하는 어쿠스틱 악기연주로봇과 콘텐츠 생성 기술 개발”을 연구중에 있다.

전상직 교수

SNU 윈드 앙상블 연주회에서 〈Veni Creator〉 초연

Professor Sang-jick Jun, premiered "Veni Creator" at SNU Wind Ensemble concert.

전상직 교수는 2015년 9월 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SNU 윈드 앙상블 정기연주회에서 기악과 김영률 교수의 지휘로 〈윈드오케스트라를 위한 Veni Creator〉가 초연되었다. 그리고 9월 30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한국예술가곡연주회" 정기발표회에서 가곡 〈노루귀꽃〉이 초연되었다.

이신우 교수

"채리티체임버앙상블 20주년기념음악회"에서 〈In the province of Asia〉 초연

Professor Shin-uh Lee, premiered "In the Province of Asia" at the 20th Celebration Charity Chamber Ensemble Concert.

이신우 교수는 2015년 12월 13일 예술의전당 IBK체임버홀에서 열린 "채리티체임버 앙상블 20주년기념음악회"에서 〈In the province of Asia〉 for string trio from Paul, a servant of Christ Jesus가 초연되었고 2월 1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린 "Soli Deo Gloria 창립기념연주회"에서 〈Psalm Cantata〉 for mixed choir and orchestra가 초연되었다.

최우정 교수

대학로 게릴라극장에서 열린 연극 〈사중주〉의 작곡

Professor U-zong Choe, composed music for the play "four seasons" held at theatre Guerilla in HyeHwa.

최우정 교수는 2015년 11월 9일에서 29일까지 대학로 게릴라극장에서 열린 연극 〈사중주〉의 작곡을 맡았다. 그리고 11월 12일에서 14일까지 프랑스 몽펠리에에서 열린 페스티벌 (Coree d'ici)에서 무용음악 〈Jarre de lune〉이 연주되었다. 또한 11월 14일에서 15일까지 부산 시민 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연극 〈궁리〉의 작곡을 맡았으며 12월 17일에 성남아트센터에서 열린 Matinee concert에서 〈Unfinished〉, 〈슈베르트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의 연출을 맡았다.

김규동 교수

"미래악회 제40회 작품발표회"에서 〈5 Bagatelles for clarinet, violincello and piano〉 초연

Professor Gyoo-Dong Kim, premiered "5 Bagatelles for clarinet, violincello and piano" at the 40th Perspective Composer's Group concert.

김규동 교수는 2015년 11월 1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미래악회 제40회 작품발표회"에서 〈5 Bagatelles for clarinet, violincello and piano〉가 초연되었다. 그리고 11월 15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위 솔로이스츠 정기연주회 제, Time Machine II" 에서 이 초연되었다. 또한 12월 19일, 예술의전당 리사이틀홀에서 열린 "음악동인 명(鳴) 제2회 작품발표회" 에서 〈카운터테너와 피아노를 위한 세 개의 가곡〉이 초연되었다.

Roland Breitenfeld 교수

"한테라 가야금 독주회"에서 〈가야금을 위한 'Fahrt mit altem Meister'〉 초연

Professor Roland Breitenfeld, premiered "Fahrt mit altem Meister for Gayageum" at Tara Han's Gayageum recital.

Roland Breitenfeld 교수는 2015년 9월 15일, 서울 스킨라티움 강남점에서 열린 "한테라 가야금 독주회"에서 〈가야금을 위한 'Fahrt mit altem Meister'〉가 초연되었다. 그리고 9월 30일, 프라이부르크 음악도서관 윈스터광장에서 열린 "Festkonzert - zur Einweihung der neugestalteten Musikbibliothek"에서 〈클라리넷(베이스 클라리넷), 피아노, 타악기를 위한 'Tempest'〉가 초연되었다. 또한 2016년 2월 25일, 프라이부르크 엘리자베트슈나이더재단 사옥에서 "Der Konigssohn vom Schwarzwald - Version SUWON"이 단독으로 독일 초연되었다.

서정은 교수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중 하나인 "작곡가 강석희 구술채록"의 책임연구원

Professor Jung-eun Seo, directed 'Oral record of Composer Sukhi Kang' as a senior researcher.

서정은 교수는 2015년 5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산하 예술자료원(Arko Arts Archive) 주관 "한국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사업" 중 하나인 "작곡가 강석희 구술채록"의 책임연구원으로 활동했다. 구술서는 2016년 하반기에 발간될 예정이다. 또한 2015년 12월 30일, 편집위원장으로 있는 한국음악이론학회&연세음악연구소 공동발행 학술지 "음악이론포럼" 제 22-2호가 발간되었다.

[지휘 전공 Conducting Major]

임헌정 교수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유럽투어에서 한국과 크로아티아와의 친선 공연

Professor Hun-Joung Lim, Korea-Coatia goodwill concert during the Korean Symphony Orchestra's European tour.

임헌정 교수는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떠난 유럽투어에서 9월 30일, 바트로슬라브 리신스키 콘서트홀(Vatroslav Lisinski Concert Hall)에서 한국과 크로아티아와의 친선 공연을 가졌으며, 이어 10월 2일 슬로바 필하모닉 콘서트홀(Slovak Philharmonic Concert Hall)에서 '브라티슬라바 가을페스티벌'에 참여하였고, 10월 4일 오스트리아 브루크너하우스 메인홀(Bruckner-Main Hall)의 '린츠 브루크너 페스티벌' 폐막공연에 한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초청돼 뜻 깊은 무대를 선보였다. 프로그램은 모차르트의 오페라 '마술피리' 서곡, 김택수의 솔로 비올라와 오케스트라를 위한 '코오(세계초연, 협연:이유라),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e단조, 작품 95 '신세계로부터'로 구성되었다. 본 투어를 통해 임헌정 교수와 코리안 심포니의 위상을 세계적으로 알리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한편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예술의 전당 Great Composer Series-브루크너 교향곡 전곡 사이클'도 계속 진행하여 10월 29일에 <교향곡 제 1번>을, 12월 15일에 <교향곡 제 8번>을 지휘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12월 28일 고양 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도 <교향곡 제 8번>을 지휘하였다. 이 외에도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

트라를 지휘하여 9월 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중앙홀에서 열린 '여의도 국회 40주년 공연', 9월 12일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열린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 통영공연', 12월 31일 '예술의 전당 제야음악회'를 이끌었으며, 11월 20일에는 현재 기관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마에스트로 임헌정 스페셜 I>에서 베토벤의 피아노 협주곡 제 2번 작품 19(협연 : 정재원), 차이코프스키의 교향곡 제 6번 <비창>을 연주하였다.

김덕기 교수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터키 Aspandos Opera Festival, 홍콩 Art Center 에서 창작오페라 "Soulmate" 공연

Professor Doc-ki Kim, performed the new Opera "Soulmate" at Hong Kong Art center and Aspandos Opera Festival in Turkey with Korea National Opera.

김덕기 교수는 창작오페라 "소울메이트"를 국립오페라단과 함께 9월 20일 터키 Aspandos Opera Festival, 10월 30일 홍콩 아트센터에서 공연하였다. 또한 12월 4일 대구 오페라 극장에서 대구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바그너 나이트"를 연주하였다.

[이론 전공 Music Theory Major]

이석원 교수

제 14차 국제음악지각인지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의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

Professor Suk-won Li, appointed as a jury at the 1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

이석원 교수는 2015년 10월 31일 영국 음악분석학회 회장인 마이클 스피처 교수 (리버풀 대학교 음대 학장)와 한국서양음악이론학회(회장: 송무경 연세대 교수)의 계획

승 박사, 조현리 박사, 정희원 박사를 초청하여 Music Analysis Forum을 개최하였다. 11월 6일 미국의 대표적인 바흐 학자 George Stauffer 교수 (Rutgers University 예술대 학장)와 이기영 교수(성신여대), 이미배 교수(전북대)를 초청하여 바흐의 음악에 관한 Music History Symposium을 개최하였다.

2016년 7월 5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막되는 제 14차 국제음악지각인지학회(International Conference on Music Perception and Cognition)의 논문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기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피아노 전공 Piano Major]

Ian Richard Hobson 교수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피아노 연구소 초청으로 독주회

Professor Ian Richard Hobson, performed piano recital invited by the Piano Research Institute a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Ian Richard Hobson 교수는 10월 1일에 전남대학교 예술대학 피아노 연구소에 초청되어 독주회를 가졌다. 10월 13일에는 미국 뉴욕의 서브컬처 홀에서 여섯개의 독주회로 구성된 Preludes - Études - Variations 시리즈의 첫번째 연주를 성황리에 마

쳤다. 11월 4일부터 7일까지는 미국 조지아의 케네소 주립대학과 조지아 음악 교사 협회(GMTA)에 게스트 아티스트로 초청되어 세번의 독주회와 마스터클래스, 렉처를 가졌고, 11월 11일에는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한국피아노두오협회에서 개최하는 스페셜 콘서트에 초청되어 주희성 교수와 호흡을 맞췄다.

박종화 교수

유니버설 뮤직을 통해 동요와 클래식을 접목한 앨범 “NUNAYA” 발매

Professor Jong-hwa Park, released the cross genre -Classic and children's song- album “NUNAYA” on Universal Music.

박종화교수는 2015년 8월 18일 유니버설 뮤직을 통해 동요와 클래식을 접목한 피아노 앨범 'NUNAYA 누나야'를 발매하였다. 이번 앨범에 수록된 고향의 봄, 엄마야 누나야 등 1900년대를 풍미한 동요와 아리랑, 새야새야 파랑새야 등 우리 민요를 편곡한 솔로 곡으로 9월 20일 LG아트센터를 시작으로 9월 24일 여수 예울마루, 9월 30일 김포아트홀, 10월 1일 제주아트센터, 10월 7일 대전 예술의 전당 등 전국을 순회하며 연주를 성황리에 마쳤다.

10월 29일에는 금호아트홀에서 기획하는 '러시안시리즈'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소나타 제2번과 Moment musicaux,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첼리스트 심준호와 함께 트리오 엘레지 제 2번을 연주하였다.

장형준 교수

알마티 국제 피아노 콩쿠르 심사위원으로 위촉

Professor Hyung-jun Chang, appointed as a jury at the Almaty International Piano Competition.

장형준 교수는 2015년 11월, 카자흐스탄에서 열린 알마티 국제 피아노 콩쿠르의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다.

주희성 교수

IBK 홀에서 장학기금을 위한 제 5회 예무스 정기 연주회 협연

Professor Heesung Ju, performed at the 5th Emus Regular Concert for a scholarship fund raising at IBK Hall.

주희성 교수는 2015년 9월 24일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예무스 장학 기금 마련을 위해 열린 제 5회 예무스 정기연주회에서 바이올리니스트 윤성원과 함께 Chausson Concerto를 예무스 스트링과르넷과 함께 연주하였다. 11월 11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피아노두오협회 주최 <해설이 있는 20세기 두오 음악> 스페셜 콘서트에서는 서울대 음대 기악과 교수인 피아니스트 Ian Hobson과 함께 라벨이 편곡한 드뷔시의 녹턴을 연주하여 큰 호응을 얻었으며 2016년 1월 20일에는 독일 베를린 필하모니 챔버 뮤직 홀에서 인터클래식 주최로 초청 독주회를 가져 성황리에 마쳤다.

[현악 전공 String Major]

백주영 교수

예술의전당 토요일콘서트에서 예술의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Vieuxtemps 의 협주곡 협연

Professor Ju-young Baek, performed Vieuxtemps Violin Concerto Op.37 at the Seoul Arts Center Saturday Concert.

백주영 교수는 2015년 9월 5일 서울 예술의 전당 콘서트 홀에서 열린 '7인의 바이올리니스트' 공연의 음악감독으로서 권혁주, 정하나, 김다미, 팀 페인, 댄주, 마리나 시쉬 등 동서양을 아우르는 세계 최정상 바이올리니스트들과 함께 무대에 올라, '화려하고 다채로운 연주로 한국을 대표하는 실내악 콘서트'라는 호평을 받았다.

9월 12일에는 2015 예술의 전당 토요일콘서트에서 H. Vieuxtemps 바이올린 협주곡 5번 a 단조 Op. 37를 예술의 전당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협연 하였고, 10월 15일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이경석 & 프렌즈에서 멘델스존과 슈베르트 실내악곡을 연주 하였고, 10월 24일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리스트 Vs 파가니니를 주제로 박진우와 함께 호흡을 맞추어 파가니니의 요정의 춤과 라 캄파넬라를 성공적으로 연주하였다.

11월 6일부터 12일까지는 한불 수교 130주년 기념 프랑스 브르타뉴 오케스트라의 초청으로 브르타뉴의 수도 렌에서 류재준 바이올린 협주곡을 브르타뉴 오케스트라와 협연, 그리고 쇼송의 피아노와 바이올린, 현악 사중주를 위한 협주곡, 류재준 클라리넷 오중주를 연주하였다.

이경선 교수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 47> 협연

Professor Kyung-sun Lee, performed Sibelius's Violin Concerto Op.47 at the Sibelius: 150th Anniversary Concert.

이경선 교수가 예술 감독으로 있는 대전 실내악 축제가 2015년 7월 26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 달여 기간 동안 '위대한 예술가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대전 예술의 전당, 카이스트, 클라 하우스, 학봉교회 등 대전 시내 곳곳에서 진행되었다.

위 솔로이스츠, 내셔널 비르투오지, 에라토 앙상블, 트리오 제이드 등의 앙상블 팀이 참여했으며, 대전 실내악 축제 폐막 공연으로 이경선, 송영훈, 임성미가 베토벤 트리플 콘체르토를 시각 장애인들로 이루어진 하트첼버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고 그들의 연주가 관객을 감동하게 하기에 충분했다.

8월 29일 군포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시벨리우스 탄생 15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시벨리우스 <바이올린 협주곡 라단조>를 장윤성 지휘, 군포 프림림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다.

10월 9일 예술의전당 IBK첼버홀에서 이경선 교수가 음악 감독을 맡고 있는 서울비르투오지 챔버 오케스트라가 정기연주회를 했다. 이날 연주에서 비발디 <두 대의 첼로를 위한 더블 콘체르토>, 아렌스키 <차이코프스키 주제의 변주곡>, 김지영 <바람의 자장가>, 슈베르트 <죽음과 소녀>가 연주되었다. 11월 9일에는 466회 하우스 콘서트가 진행되었는데 권혁주, 김상진, 김호정과 함께 아나체크 <현악사중주 1번 - 크로이처 소나타>, 아나체크 <현악사중주 2번 - 비밀편지>를 연주하였다. 12월 22일에는 예술의 전당 IBK첼버홀에서 양성식, 김상진, 이승진등과 함께 한국 현악협회 합주단 창립 연주회가 진행되었다.

최은식 교수

‘배익환 선생님 서거 1주기 추모음악회’을 위해 앙상블 연주

Professor Eunsik Choi, performed in an ensemble during the memorial concert for Professor Bae In Hwan one year after his death.

최은식 교수는 2015년 9월 7일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바이올리니스트 ‘배익환 선생님의 서거 1주기 추모음악회’를 위해 화음 챔버와 강동석, 조영창, 김남윤, 임성미 등 국내 최고의 연주자들과 함께 앙상블 무대를 화려하게 펼쳤다. 시벨리우스의 ‘즉흥

곡 작품번호 5’, 비발디 ‘바이올린 협주곡 제8번 가단조 작품번호 3’, 바하 ‘2대의 피아노를 위한 협주곡 다단조’, 브람스 ‘피아노3중주 1번’ 등 다양한 레파토리로 추모 연주회를 빛냈다. 또한 10월 15일에는 예술의 전당 IBK홀에서 ‘2015 예술의 전당 클래식 스타 시리즈’를 통해 이경숙과 음악친구들이란 부재로 이경숙, 백주영, 김민지, 성민제, 김세일과 함께 성황리에 연주를 마쳤다. 이 날 연주에서는 멘델스존과 베토벤 그리고 슈베르트 ‘송어’를 통해 관객들에게 성공적인 연주로 보답하였다.

[관악 전공 Wind Major]

김영률 교수

예술의 전당 콘서트홀에서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를 지휘

Professor Youngryul Kim, conducted at the Regular Concert of the SNU Wind Ensemble at the Concert Hall, Seoul Art Center.

김영률 교수는 2015년 9월 6일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SNU Wind Ensemble 정기연주회를 지휘하였다. 이 연주회는 전상직 교수의 작품 <“Veni Creator Spiritus” for Wind Orchestra> 초연과 함께 무소르그스키의 전람회의 그림(M. Mussorgsky - Pictures at an Exhibition) 전곡을 연주하였다. 특별히 SNU Wind Ensemble과 슈만의 네 대 호른을 위한 협주곡(Konzertstück für vier Hörner und Orchestra F-Dur Op. 86)을 위하여 초청한 룩셈부르크 혼사중주단(Luxembourg Horn Quartet)은 국내 관객들에게 큰 호응과 찬사를 받았으며, 세계적인 호른리스트 Miklos Nagy, Kerry Turner, Leo Halsdorf, Kristina Mascher의 연주와 마스터클래스와를 통하여 매우 유익하고 인상 깊은 시간을 나눴다.

10월 2일부터 7일까지 중국 북경중앙음악원에서 열린 China International Horn Festival에 참가하여 연주하였고 현지에서 열린 김영률 교수의 마스터클래스는 페스티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김영률 교수가 이끄는 SHA Ensemble(본교02-07학번 졸업생으로 이루어진 혼 앙상블 단체)의 정기 연주를 맡아 10월 11일 예술의전당 IBK Chamber Hall에서 지휘하였고, 18일 서울음대 동창회 홈커밍데이를 맞이하여 열린 콘서트에서 모차르트의 그랑 파르티타(Gran Partita)를 연주하였다.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김영률 교수가 이끄는 실내악앙상블 <The Winds>의 연주회가 KT Hall에서 있었다.

11월 11일 화이 초청 음악회에 출연하여 모차르트와 구노의 작품들을 연주하였고, 13일은 신한생명 연수원에 초청 받아 강의와 함께 음악회 지휘를 맡아 연주하였다. 17일 본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는 SNU Wind Ensemble의 실내악 연주회가 있었다. 이날은 모차르트를 비롯하여 스트라우스, 하슬러 그리고 라이네케 등의 다양한 실내악 작품들을 연주하여 교내외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25일에는 서울대학교 미술관 MoA에서 “음악으로 마음을 완성하다”라는 제목의 미술대학 ACP 강의를 하였고 라이네케와 모차르트의 작품을 연주하였다. 28일은 거제도에 위치한 애광원을 찾아 연주하며 11월의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12월 10일은 ESM(이스트만) 동문음악회에 출연하여 라이네케의 작품을 연주하였고, 30일과 31일은 김포필하모닉 오케스트라를 이끌고 각각 송년음악회와 유망신예연주회 지휘를 맡아 김포아트홀에서 연주하였다.

최경환 교수

Studio 2021에서 SNU Symphony band의 특별연주 지휘

Professor Kyung-hwan Choi, conducted a special performance of the SNU Symphony Band at STUDIO 2021's concert.

최경환 교수는 2015년 10월 16일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현대음악 축제인 Studio 2021에서 SNU Symphony band와 특별연주로 Sandstrom의 Christmas Music을 지휘하여 큰 공감을 이끌었다. 또한 11월 1일 경기 문화의 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Song Piano Ensemble의 정기연주회에 초대되어 Helweg의 American Fantasy를 연주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같은 달 27일에 김포 아트홀초청 서울대학교 관악합주단 윈드 앙상블 초청 음악회의 지휘를 맡아 Bizet의 L'Arlesienne Suite no.1, Walliwoda의 오보에 협주곡(협연 김수영, 기악과 1학년), Meij의 The Lord of the Rings Symphony no.1을 연주하여 김포 시민 큰 호응과 반향을 일으켰다.

윤혜리 교수

IBK 챔버홀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앙상블 샘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W.A Mozart Flute Concerto in G Major K.313 협연

Professor Hye-ri Yoon, performed W.A Mozart's Flute Concerto in G Major K.313 at Orchestral Ensemble SAM's regular concert held at the IBK Chamber Hall.

윤혜리 교수는 2015년 9월 3일, 예술의 전당 IBK 챔버홀에서 열린 오케스트라 앙상블 샘 제3회 정기연주회에서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1번 사장조(W.A Mozart Flute Concerto in G Major K.313)를 협연을 하였다. 10월 16일에는 서울대학교 예술관 콘서트홀에서 열린 Studio 2021, Performers Studio : SNU Wind 연주에서 최경환 교수와, 로망 귀요 교수, 그리고 서울대학교 관악합주단과 함께 실내악 연주를 하였다. 그리고 10월 22일에는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성남시립교향악단과 모차르트 플루트 협주곡 2번 라장조(W.A Mozart Flute Concerto in D Major K.314)를 협연 하였다. 10월 25일부터 10월 31일까지 독일에서 열린 쿨라우 국제콩쿠르에서 심사위원으로 대회 참가자들을 심사하였다. 11월 22일에는 송실대학교 한경직 기념관에서 사랑의 플룻콰이어 제24회 자선연주회에서 플루트 앙상블 연주를 하였다. 그리고 11월 27일에는 예술의전당 IBK 챔버홀에서 마드리 실내악단의 반주에 C.P.E Bach Flute Concerto in G Major를 협연 하였다. 마지막으로 12월 8일에는 DS Hall에서 열린 박라나 하프 리사이틀에서 C.Debussy Trio for Flute and Harp와 W.A. Mozart Concerto for Flute and Harp 곡을 연주 하였다.

국악과 Department of Instrumental Music

임재원 교수

국립국악관현악단 제6대 예술감독으로 취임

Professor Jaewon Lim, appointed as the 6th artistic director at National Orchestra of Korea.

임재원 교수는 2015년 10월 1일 문화관광부 국립중앙극장 소속의 국립국악관현악단 제6대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였다. 임기는 3년으로 겸직 조건이다. 1995년 창단하여 올해 20주년 기념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친 국립국악관현악단은 내실 있는 악단으로 정평이 나있다. 10월 3일에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대금연구회 제15회 정기연주회를 이사장 자격으로 주최 및 주관하였다. 10월 30일에는 국립국악원 예약당에서 2015 서울대 국악정기연주회 2부 창작관현악 세 곡을 지휘하였다. 11월 12일에는 국민대학교 초청으로 교내 명원관에서 '임재원의 대금소리'라는 주제로 렉처콘서트를 진행하였다.

이지영 교수

러시아에서 열린 한·러·몽골 수교 25주년 기념공연에서 가야금 협주곡 초연

Professor Ji-young Li, premiered Gayageum Concerto at the 25th Anniversary Concer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Russia and Mongolia.

9월 5일 러시아 올란우데에서 열린 한·러·몽골 수교 25주년 기념공연에서 도널드 워맥 작곡 가야금협주곡인 "Spiral Toward the Center of the Sky"를 초연하였다. 또한 10월 5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러시아 올란우데시립오케스트라와 협연하였으며, 10월 8일 명인 민속관 초청으로 이지영 가야금독주회를 개최하였다.

정대석 교수

정대석 교수, 대한민국문화예술상 대통령 표창 수상

Professor Daeseok Jeong, received the President Prize at Republic of Korea Culture and Art Award.

올해로 47회를 맞은 '대한민국문화예술상'에서 정대석 교수가 음악 부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5년 11월 12일 문화예술 유공자 시상식에서 한 해 동안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공을 세운 연주자로 평가받아 상금 1천만원과 함께 대통령 표창장을 수여 받았다.

올 하반기, 정대석 교수는 교육자이자 연주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그는 서울대 거문고 전공 학부생들의 발전을 위해 10월 1일 콘서트홀에서 열린 SNU 거문고 앙상블 '지향'의 정기공연 <동경담화>를 직접 지도하며 공연을 이끌었다. 10월 7일에는 원주시의 초청으로 강원감영에서 <관찰사의 풍류달밤 거문고명인 정대석 초청연주회>를 열었고, 10월 10일 서울역사박물관 토요음악회에서 <명인 정대석의 음악세계>라는 주제로 연주회를 개최 하였다.

뿐만 아니라, 11월 18일 콘서트홀에서 열린 <2015 서울대학교 국악과 교수음악회>에서는 그동안 작곡한 작품들로 꾸며 멋진 연주를 선보였으며, 12월 23일에는 국립국악원 초청으로 <2015 송년 나눔공연>에서 수리재를 협연하였다.

김우진 교수

「한국음악학 연구 방법론」 출판 및 스페인 한국문화원 초청강연 펼쳐.

Professor Woo-jin Kim, published "Study Methodology of Korean Musicology" and was invited to give a lecture in Spain.

김우진 교수는 2015년 7월 31일 동양음악연구소 연구총서7, 『한국음악학 연구 방법론』을 출판하였다. 김우진 교수는 『한국음악학 연구 방법론』을 통하여 지난 30여년간 학생들을 지도해오며 체득한 방법론적 연구법을 실제 음악학논문의 사례를 통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또한 한국음악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창의적인 방법론을 통한 독창적인 연구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김우진 교수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스페인 마드리드소재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2015년 스페인 한국문화원 무형문화주간행사> "Ringing the soul_영혼을 울리는 소리" 에서 스페인 현지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국의 음악과 악기> 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김우진 교수는 한국의 음악과 악기를 간략한 국악사와 함께 알기 쉽게 설명하여 현지인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다.

한편 김우진 교수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동양음악연구소 소장으로 재직중이며, 지난 10월부터 동양음악연구소 프로젝트(민속악 현장조사 자료의 수집 및 정리, DB구축,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진흥사업단 지원)의 총책임임을 맡아 진행하고 있다. 프로젝트 업무의 일환으로 김우진 교수는 12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일본 동경 예술대학교에 방문하여 우에무라 유키오 교수(동경예대 음악학부 교수)와 프로젝트 관련 연구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고이즈미 자료실과 프로젝트 세부 일정을 논의하였다.

김경아 교수

서울시국악관현악단 '방아타령' 협연

Kyungah Kim, performed "Bang-a Taryeong" at the Seoul Metropolitan Traditional Music Orchestra's regular concert.

김경아 교수는 2015년 10월 22일 세종문화회관 M씨어터에서 열린 서울시국악관현악단 제326회 정기연주회 <한양 그리고 서울, 서울에서 꿈꾸다> 공연에서 협주곡 '방아타령'을 연주 하였다.

이 연주회에서 본래 해금 협주곡인 '방아타령'을 태평소로 연주하였다. 또한 김경아 교수는 21세기피리음악연구회 회장으로서 11월 13일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 21세기피리음악연구회 제14회 정기연주회 <창신 룰, 그리고 그리다>를 총괄하여 성공적으로 개최하였다.

편집후기

편집위원				
		한	마	디



인생의 소중한 경험이 된
음대 소식지 화이팅!
- 지영



마지막 대학 생활의 히노아락이 여기에...
- 수옥



그 어느때보다도
어정 깊었던 소식지 17호!
- 태연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own, but it is a morning both gold in its own right and as one minute ago.
Regret for wasted time is more common than regret for wasted money.
Regret for wasted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own, but it is a morning both gold in its own right and as one minute ago.
Regret for wasted time is the most valuable thing a man can own, but it is a morning both gold in its own right and as one minute ago.



음악대학 소식 제17호 | 2016년 3월 발행

발행인

·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김귀현

편집위원장

· 김규동 기획홍보실장(작곡과 교수)

편집위원

· 유태연 기악과 피아노전공

· 이수옥 국악과 해금전공

· 심지영 작곡과 이론전공

영문

· 김미혜 작곡과 작곡전공

사진

· 249 스튜디오

디자인 · 인쇄

· (주)다모아피앤디

College of Music Magazine Vol. 17

Publisher

· Prof. Kwi-Hyun Kim, Dean of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

Editor

· Prof. Gyoo-Dong Kim, Department of Composition, Chair of the office of International Affairs & PR

Editorial Board

· Ji-Young Sim, BA course in Musicology

· Su-Ok Lee, BA course in Korean Traditional Music

· Tae-Yeon Yoo, BM course in Piano

English

· Mi-Hye Kim, MM course in Music Composition

Photo

· 249 Studio

Design & Printing

· DAMOA p&d

음악
대학
소식

Spring. 2016. Vol.17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usic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College of Music Seoul National University